

朝鮮王朝 宮中食에 관한 文獻學的 研究

李 盛 雨

漢陽大學校 食品營養學科

(1985年 12月 22日 接受)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Food used in the Royal Palace of Chosun Dynasty

Sung Woo Le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Received December 22, 1985)

Summary

The food used in the royal palace of Chosun dynasty(朝鮮王朝) are viewed from various aspects of the dishes for ordinary meal, royal banquet, reception for the foreign representatives, wedding feast, and ancestral rites.

Unfortunately most of knowledge on the food used in the royal palace is not accurate as it had been delivered orally and includes only that of the late Chosun dynasty era.

Accordingly more accurate knowledge on its historical change could be illustrated by the ancient literature, including uigue(full account, 儀軌), dungrok(memorandum, 膳錄) or balgi(list, 件記).

Though it is different from the preparation of King's dinner table in kitchen, the uigue on ordinary meal, while King Jungcho(正祖) and his troupe visited the Hwasung(華城) has been handed down as the literature on the ordinary meal of the royal palace.

Twenty seven kinds of uigue and dungrok on royal banquet for a celebration, from the 45th year of Sook Jong(肅宗,1715) to the 6th year of Kwang Moo(光武,1902), remain & reveal the change of features on dishes and food materials for royal banquet.

Twenty kinds of uigue and dungrok on foods for reception of Chinese representatives, from the first year of Kwang Hae Koon(光海君,1609) to the 21st year of Injo(仁祖,1643), remain and antedate those on foods for royal banquet approximately 100 years. These have been precious materials for historical view on foods used in the royal palace.

Twenty kinds of dungrok and uigue of karaedogam(嘉禮都監), in which dishes, food materials, and table setting diagram for dongrae feast(同牢宴) were put on record, remain as the literature of wedding feast.

Wangchosilrok (dynastic record, 王朝實錄) and numerous kinds of uigue have been helpful for study on foods used in ancestral rites. Detailed kinds and cooking procedures of foods for ancestral rites were clearly explained in Taesangji(太常志).

A full view on foods used in the royal palace will be reproduced only through analytic study of these ancient literatures.

I. 序 論

조선왕조의 宮中食은 종래 尚宮이나 宮中熟手들의 입이나 손을 통하여 일부 전해지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韓末 또는 망국 후의 것이니 이것만으로는 조선왕조 궁중식의 재료·料理法·食事儀禮 등의 전모나 변천의 역사를 알수는 없다. 또 궁중식이라 하여도 궁중의 日常食·궁중에 慶事가 있을 때의 宴會食·外國使臣을 위한 迎接食·宮中の 嘉禮食·宮中の 祭祀食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는바, 이들의 연구는 文獻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朝鮮朝初期의 宮中食에 관한 現存文獻으로서 高麗末부터 成宗(1470~1494)初까지 약 100年間의 法典을 吏·戶·禮·兵·刑·工의 六曹로 나누어 정리한 「經國大典」을 들 수 있다. 이것은 英祖·正祖·高宗時에 각각 增補改正되었다. 그런데 이 「經國大典」은 구체적으로 宮中食의 材料·料理法·配膳法·食事儀禮 등을 설명한 것은 아니고 宮中食에 관한 職制나 事務規定 등이 적혀 있을 뿐이다.

吏典에 의하니 宮中에서 奉職하는 女官으로 品階가 있는 女人을 內命婦라 하는데, 內命婦인 尚食(正五品)·典膳(正七品)은 王의 日常食을 조달하고, 世子宮에는 掌膳(從七品)이 있다.

그리고 京官職의 正二品衙門인 禮曹의 典亨司는 宴會·祭祀·祭物·飲膳을, 典客司는 外國使臣을 迎接하는 宴會 등을 맡고, 戶曹에는 應辦色이 있어서 外國使臣을 접대하는 物件의 支給에 관한 事務를 맡는다. 또 正三品衙門인 奉常寺에서는 祭祀와 諡號를, 司饗院에서는 王의 食事와 大闕안의 食事의 공급에 관한 일을 맡는다. 고려시대의 尚食局(朝鮮朝의 司饗院)에 正九品の 食醫가 있는데 朝鮮朝의 官制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 從四品衙門인 司導寺에서는 宮中 米倉의 米穀과 宮中에 공급되는 醬 등의 물건을 관리하며, 司宰監은 宮中에 사용되는 魚類·獸肉·食塩·燃料를 맡는다.

從五品衙門에는 昭格署(醮祭), 司醴署(술과 甘酒), 典牲署(祭祀에 쓸 짐승의 飼育)가 있으며, 從六品衙門에는 內資寺(宮中에 공급되는 米穀·麵類·醬·油·蜂蜜·蔬菜·宮中宴會), 內贍寺(各 宮에 올리는 물건과 2品以上의 高官에 하사하는 酒類), 禮賓寺(賓客·燕享·宗宰에 공급하는 食事), 義盈庫(國有의 油類·蜂蜜·胡椒 등), 水庫, 掌苑署(꽃나무·果實나무의 재배), 司圃署(채소의 재배), 司畜署(家畜以外的의 짐승飼育) 등이 있다.

한편 內侍府에서는 王이 거쳐하는 大內的 食事を 감독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尚膳

(2人, 從二品), 尚醴(1人, 正三品), 尚茶(1人, 正三品) 등이 있고, 곁에서 시중드는 薛里가 따른다. 內侍의 制度가 甲午更張(1894)을 계기로 없어진 韓末에는 이 일을 尚宮들이 맡게 되었다.

그리고 禮曹의 宴享에 관한 事務規定에 의하니 端午·秋夕과 行幸할 때는 議政府와 六曹에서 進宴하며, 每年 가을에는 養老宴을 연다고 하였다. 英祖 때의 「續大典」에 의하니 大享後에는 飲福宴이 있다는 것이다. 또 禮曹에 祭禮·婚嫁·頒水에 관한 事務規定이 있고 「續大典」의 選上 規定에 의하니 進宴 때 女妓52人을 뽑아 올리되 特旨가 있으면 加減한다는 것이다.

또 刑曹에는 關內各差備에 관한 規定이 있는데, 差備란 各 宮司의 最下級雇傭人으로서 이들이 宮中食 마련의 實務를 맡는다. 大殿에 속하는 差備는 飯監(대궐안에서 음식물과 各種進上을 맡아보는 구슬아치) 6人, 別司饗(飲食物을 만드는 者) 14人, 牀排色(飲食床을 차리는 구슬아치) 10人, 炙色(구이를 맡는다) 6人, 飯工(밥을 짓는다) 12人, 泡匠(두부 만들기) 2人, 酒色(술을 맡는다) 4人, 茶色, 4人, 餅工 2人, 蒸色(각종 찜을 맡는다) 10人, 水工 18人, 別監 46人 등이 있어 비록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周禮」膳夫의 飲食關係 官制를 보는 듯 하다.

그러다가 光武9年(1905)의 宮內府 官制에 의하니 宮內府에 奉常司(祭禮와 諡事)나 典膳司(御膳·饗宴·器具) 등이 있고, 降熙3年(1909)의 典膳司 分課規定에 의하니 主膳課와 典膳課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朝鮮朝의 法典은 어디까지나 職制나 事務規定에 관한 것으로 宮中食의 모습을 일부 엿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朝鮮朝中期以後의 구체적인 宮中食에 관한 儀軌·膳錄 및 官中食件記는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儀軌란 나라에 큰 일이 생기거나 慶事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後世의 참고로 삼기 위하여 그 일의 論議過程·準備過程·儀式節次·進行·行사가 끝난 후 有功者 褒賞에 관한 일들의 기록이다.¹⁾

이러한 國家行사가 있을 때는 그 行事を 主管하는 臨時官廳을 설치하였다가 행사가 끝나면 없애 버리는데 이러한 임시관청을 都監이라 하였다. 도감은 행사의 종류에 따라 進宴都監·進饌都監·嘉禮都監·國葬都監·山陵都監·諡號都監·封陵都監·祭器都監·迎接都監 등등이 있다.

都監의 職制는 일반적으로 上位職인 都提調1명(議政), 提調 3~4명, 都廳 2~4명, 郎廳 4~8명

등이 있고 그 아래에 實務를 담당한 官吏가 배치되었다.

그리고 각 都監에서 행사를 치른 過程 全部를 우선 日字順으로 기록하는데, 이것을 膳錄¹⁾이라 하고, 이 膳錄에 의하여 儀軌를 만든다.

한편 藏書閣에는 약 800種의 宮中件記(발기)가 소장되어 있다.²⁾ 件記는 單子·名單이라表記한 것도 있는데 이들은 國婚, 冠禮, 尊號, 茶禮, 賞格, 日常의 誕日·名節, 公主庫間, 下賜, 山陵, 巫祝 등에 所要된 物品 目錄인데, 여기에 음식관계가 90餘種 있다. 이들 가운데서 國婚關係가 대부분을 차지하고表記는 1/5에 가까운 것이 漢文이고 나머지는 모두 우리 宮體로 쓰여 있다.

그리고 王朝實錄이나 몇몇 古書籍·辭典등에도 宮中食 研究資料가 실려있다.

이상과 같은 文獻들을 연구하므로써 朝鮮王朝 宮中食의 再現이 어느 정도 可能할 것이다.

II. 宮中 日常食

宮中日常食에 관한 연구 문헌으로서 正祖 19年(1795)의 「闕幸乙卯整理儀軌」는 매우 자세하고 또한 희귀한 존재이다. 이것은 正祖 19年 正祖가 思悼世子(1735~1762, 莊獻世子, 莊祖)와 慈宮(1735~1815, 惠慶宮 洪氏, 敬懿 王后)이 甲年이 되고, 慈殿(英祖 繼妃)이 51歲가 되며, 正祖의 즉위 20年동 慶事가 겹치는 해를 맞이하여 慈宮과 慈殿에 각각 尊號를 올린 후, 慈宮과 함께 淸衍郡主(郡主는 王世子の嫡女)·淸嬪郡主를 데리고 華城의 顯隆園(思悼世子陵)에 行幸하였을 때의 배경과 그 경위 절차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正一行은 윤 2月 9日 園行길에 오르고 始興行宮에서 經宿하였다.³⁾ 10日에는 華城에 도착하였고 11日에는 華城聖廟를 배알하고, 洛南軒에 나아가서 文武庭試·別試를 보여 文은 崔之聖 등 5명, 武는 金寬 등 56명을 뽑았다.⁴⁾

13日에는 惠慶宮을 위한 頌壽進饌宴을 奉壽堂에서 거행하였으며, 14日에는 新豐樓에서 賜米를 하고

洛南軒에서 養老宴을 베풀었다. 15日 歸路에 서서 16日에는 還宮하였다.⁵⁾

이 儀軌는 卷首 5卷 附錄 4卷 合 8冊이다. 卷首는 擇日·座目·圖式으로 이루어지고, 圖式으로서는 華城行宮圖·奉壽堂進饌圖·採花圖·器用圖·服飾圖·洛南軒養老宴圖등등이 있다. 卷 1은 傳教·筵說(임금의 下問에 올리는 말)·樂章·致詞……, 卷 2는 議註·節目·啓辭로 이루어지고 儀註는 나라의 典禮의 절차를 적은 것인데 이것으로는 大駕出還宮儀·華城聖殿拜儀를 비롯한 9가지가 있다. 卷 3은 啓目·狀啓·移文·來關(상급 또는 동급의 관청에서 온 公文)·手本(公事に 관하여 自筆로 上官에게 보고하던 서류)·甘結(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에 내리는 公文), 卷 4는 饌品·採花·器用·排設·儀仗……, 卷 5는 内外賓·參宴老人·陪從·賞典·財用등으로 이룩된다. 그리고 附編은 誕辰慶賀·景慕宮辰拜·永興本宮躋享·縉宮紀蹟의 4卷이다.

대체로 조선왕조 궁중 연회시의 高排飲食이 宮 밖으로 나누어지는데 비하여, 궁중의 日常食은 오랫동안 宮中の 九重深處속에 묻혀 바깥 社會에 알려지지 않았다. 나라가 亡하니 宴會飲食은 宮中の 熟手(料理士)의 一部가 市中の 料亭에 빠져나가므로서 널리 알려졌고, 韓熙順 尚宮(1889~1972)이 1957년부터 淑明女子大學校에서 宴食食과 日常食의 料理法을 두루 특별강의를 하였으며,⁶⁾ 또 같은 해 韓熙順·黃慧性·李惠卿의 셋 분이 「李朝宮廷料理通攷」를 펴내었다.⁷⁾ 그러나 이책은 宮中料理 전반에 걸치는 料理專門書로서 日常食과 行事食을 나누지 않았고 儀式節次는 아주 언급이 없다.

한편 崔恩喜의 회고록⁸⁾에 의하여 새로이 알려진 사실로서 그는 1952年 「食文化研究會」를 조직하여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金子齒科 內室을 빌어 고종·순종·윤황후의 수라를 만들던 한희순 상궁을 首席교수로, 민유식(민영희의 따님)·송달원(윤덕영의 자부)·김정현(윤택영의 자부)·윤희섭(유억겸 부인)·박원희(박영효 자부) 등을 지도교수로 모시고 실습을 하였다고 하니, 이는 宮中食 보급운동의 嚆矢라고 할 수 있다.

(1) 朴炳善(1985), 朝鮮朝의 儀軌, 韓國精神文化院, 高錫圭 外(1982), 李章韓韓國本圖書 解說, 서울大學校 圖書館.

(2) 金用淑(1970) 李朝女流文學 및 宮中風俗의 研究, 淑明女子大學校.

(3) 正宗實錄 卷42 正宗19年 윤 2月辛卯, 日省錄 正宗乙卯年 윤 2月 9日.

(4) 正宗實錄 卷42 正宗19年 윤 2月 癸巳, 日省錄 正宗乙卯年 윤 2月11日, 華城城役儀軌 附編 2. 傳教乙卯 윤 2月11日.

(5) 正宗實錄 卷42 正宗 18年 윤 2月 乙未·丙申·戊戌, 日省錄 正宗乙卯年 윤 2月 13·14·16日.

(6) 李盛兩(1981) 韓國食經大典, 郷文社.

(7) 韓熙順·黃慧性·李惠卿(1957) 李朝宮廷料理通攷, 學叢社.

(8) 崔恩喜(1985), 韓國開化女性列伝, 正音社.

그러다가 黃慧性은 한회순 상궁에 전수받은 宮中食을 1971년에 「韓國의 味覺」⁹⁾ 속에 정리하였다.

한편 金用淑¹⁰⁾이 1970年 趙尚宮을 통하여 伝해들은 韓末 內人들의 宮中日常食 事務分掌을 보면, 生果房(朝夕수라 이외의 生果·煎果·茶食·죽·응이등을 맡는다), 內燒酒房(朝夕의 수라를 장만하는 곳으로 生果房의 협조를 얻어 床을 올린다), 外燒酒房(告祀·王子女의 百日·誕日등에 백설기를 만들고, 小規模의 접대용床을 마련한다), 退膳간(중간부엌같은 것으로 燒酒房에서 마련한 飲食을 다시 데우고 수라를 지으며 退膳을 맡는다)등이 있고, 또 尚宮은 王의 수라床의 毒檢도 맡는데, 이것을 氣味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金命吉¹⁰⁾에 의하니 宮中の 日常食은 소주방에서 말는데, 王이나 王妃가 평소에 받는 진지상은 수라상이라 한다. 궁중에는 兼床이란 것이 없고 두분 마마도 각각 독상을 받고 나란히 일자로 앉아 수라를 드시었다. 아침수라는 10시가 지나고 저녁수라는 밤늦은 시간이라 한다. 아침수라 전에 보약을 달여 마시니 자연 시간이 늦어지고, 점심은 응이나 죽등 유동식을 차린다. 탄일이나 종친이 문안차 들면 麵床을 차린다. 그리고 한분 마마마다 각각 원반·소원반(결상)·책상반(결상)등 3개의 상이 마련되었다. 수라는 흰 수라와 팔수라의 두 그릇을 올린다는 것이다.

또 金用淑¹⁰⁾은 말하기로 王의 수라는 하루에 다섯번인데 아침수라 前에 자리朝飯이라 하여 粟미음 또는 酪粥·깨죽같은 것을 드셨고, 三時外에 夜참이 있어 이것도 藥食·水煎果類가 아니면 酪粥이었다. 高宗皇帝는 讓位후에 덕수궁시절 밤참으로 冷麵과 설령탕을 즐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궁들의 수라料理에 관한 설명은 어디까지 韓末이후의 것이고, 文獻的인 뒷받침이 없음이 아쉬웠으나 最近 金春蓮¹¹⁾이 「園幸乙卯整理儀軌」을 통하여 200年前인 正祖19年の 宮中日常食의 모습을 文獻的으로 명백히 밝힌 것은 크다란 成果라 하겠다.

「園幸乙卯整理儀軌」卷4 饌品에는 「一行이 出宮하여 還宮하기까지의 食單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곧 移動式 소주방에서 마련한 日常食이다.

慈宮·大殿·郡主·宮人·內外賓·本所堂上·內外策應監官·檢書官·閣吏·別隨駕將官·本所將校·書史·書寫·庫直·女伶·樂工등의 食單이 身分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곧 大殿의 食單을 보기로 적어보면, 9日의 朝水刺·晝茶小盤果·夕水刺·夜茶小盤果, 10日의 晝水刺·晝茶小盤果·晝茶別盤果·夕水刺·夜茶小盤果, 11日의 粥水刺·朝水刺·晝茶小盤果·夕水刺·夜茶小盤果, 12日의 朝水刺·晝茶小盤果·夕水刺·夜茶小盤果·晝茶小盤果, 13日의 粥水刺·早茶小盤果·朝水刺·晚茶小盤果·夜茶小盤果, 14日의 粥水刺·朝水刺·晝茶小盤果·夕水刺·夜茶小盤果, 15日의 朝水刺·晝茶小盤果·夕水刺·夜茶小盤果·晝茶小盤果·晝水刺, 16日의 晝水刺·朝水刺에 대하여 각각의 호화로운 料理종류와 규모가 기록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本所堂上은 각각 飯1器·湯1器·饌1器·沈菜1器이며, 女伶·樂工등에는 각각의 食事가 아니고 飯3行擔·湯2盆·饌2錚盤의 共同食임을 알 수 있다.

水刺란 飯水刺를 말하는데 元盤에는 飯·羹·助致·灸伊·佐飯·醢·菜·沈菜·淡沈菜·醬·饅頭·煎·片肉·炙·蒸등이 차려지고 挾盤에는 湯·炙·蒸·片肉·饅頭·膾·魚肉등이 차려진다. 粥水刺도 元盤과 挾盤으로 이루어지는데 飯 대신 粥이 놓일 뿐 饌品樣式은 비슷하다.

米飲床은 出宮還宮時와 각 站(역마을→참)·中路에서 드시는 것으로 米飲·膏飲·正果·煎藥등으로 차려지고, 盤果床은 行次中 각 站에서 早茶·晝茶·晚茶·夜茶등의 이름으로 접대를 위하여 올리는 床이다.

그리고 飯水刺의 床차림을 통하여 이제까지 定義가 애매했던 助致·佐飯등의 조선시대에 있어서의 概念을 잡을 수 있고, 이것은 「韓國料理文化史」¹²⁾에서 대충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宮中日常食은 어디까지나 主食과 副食으로 區別된다는 점을 지적해두어야 하겠다.

또 水刺床이나 米飲床에 쓰이는 食器를 비롯한 각종 器皿·雜物의 종류도 그림과 함께 실려 있다.

그리고 「園幸乙卯整理儀軌」을 書誌學的으로 고찰해보면 이 책은 儀軌로서는 최초의 印刷本이다. 古전의 儀軌는 모두 筆寫本이고 이 책의 活字는 특색

(9) 黃慧性(1971), 韓國의 味覺, 宮中飲食研究院.
(10) 金命吉(1977), 樂善齊周, 中央日報.
(11) 金春蓮(1984), 18世紀 宮中飲食考, 대한 가정학회지.
(12) 李盛雨(1985), 韓國料理文化史, 敎文社.

있는 生生字를 字本으로 삼아 만든 整理字(銅活字)로서 現代의 印刷本을 보는듯 하다.

이 책의 板圖¹³⁾은 우리나라 古書에 나타나는 板畫中 가장 代表的인 作品이라할 수 있으리만큼 정교하며, 매우 상세한 의상·장신구·가구·건축양식·의식도·무용도·班次行列圖등이 당시의 풍속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한다.

한편 光海君元年(1609)의 「迎接都監雜物色膳錄」에는 淸나라 使臣을 위한 飯床排列圖가 실려 있다. 이것으로 光海君時代의 中國式이 加味된 日常食의 前모를 엿볼 수 있기도 하다.

그리고 宮中 日常의 誕日이나 名節등에 올리는 御床의 件記나 宮中 夜饌件記등이 많이 남아 있다. 이를테면 辛亥(1851) 2月 16日 「탄일 낮것상의 받기」는 다식과와 만두과 高 1尺, 연사(홍매화·백매화·은백자총자), 간정(홍세강반·백세강반·말백자), 각색 절육, 당(사당·꿀병·각색당), 실과(용안·여지·생니·생꿀·임금·적니·승도·산사·사과·조홍), 각색 다식, 각색 숙실과, 각색 정과, 산사수정과, 편(임자꿀차시루편·늑두차시루편·당귀의 시루편·백설고), 조약(대조 조약·청조 약·밀쌈·국화엽), 약식, 연계증, 전복초, 각색느름적, 전유어(생선전유어·해전·양전유어·간전유어), 편육, 족숙편, 데숙편, 데퇴, 각색어채, 임자수잡탕, 초계탕, 온면, 냉면, 수란, 청, 겨자, 초장등으로 이루어지고, 또 壬辰(1892) 7月 25日 「王誕日御床件記」등 많은 日常食件記가 남아 있다.

또 宮中 日常食에 관계되는 用語를 수립정리한 金用淑¹⁴⁾의 論文도 있다.

Ⅲ. 宮中慶事時的 宴會食

宮中の 慶事 이를테면 王·王妃·大妃등의 회갑·탄신·4旬·望5(41歲)·5旬·望6 등의 특별 記念日이나 이들이 尊號를 받았을 때, 또는 王이 善社에 들어 갔을 때 宮中에서는 王의 允許를 받아 큰 宴會를 베풀게 된다.

金命吉¹⁵⁾이 말하기로 궁중의 잔치를 進宴이라 하는바, 보통의 수리상은 內人인 주방상궁이 만들었으나 진연 때만은 待令熟手라고 하는 男子料理士가 맡았다. 솜씨가 좋은 熟手들은 大部分 代를 이어가며 宮에 머물렀고 王의 총애도 받았다. 王의 탄신이나 嘉禮때는 御床를 차렸는데 王族들의 상차림은

가지수는 같았으나 床의 높이로 우열을 가렸다. 그리고 御床은 退膳한 後 高排음식을 힐어서 종친이나 臣下집으로 하사하였다. 대개 한 가지 색을 한지로 싸서 보냈기 때문에 사람마다 받는 음식이 틀렸다. 이 음식들을 架子에 실어서 교군이 앞 뒤로 끌고 다니며 나누어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口傳資料로서는 조선왕조 宴會食의 變遷사를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역시 그 時代 그 時代의 자세한 文獻이 요구된다.

黃慧性은 「韓國의 味覺」¹⁶⁾에 高宗 5年(1868)의 進饌儀軌에 나오는 宴會用料理의 종류와 그 材料를 소개하였고, 필자는 國內外的 여러 圖書館에서 13종의 宴會食 儀軌를 찾아내어 이들을 「韓國食經大典」¹⁷⁾과 「朝鮮時代調理書의 分析的研究」¹⁸⁾에서 解說하였으며, 필자는 다시 純祖 29年의 進饌儀軌·高宗 10年의 進爵儀軌·光武 5年의 進宴儀軌·光武 6年의 咸寧殿進宴儀軌의 4종을 追加한 17종의 宴會食 儀軌를 「韓國料理文化史」¹⁹⁾에 소개하였다. 李孝枝²⁰⁾는 17종의 儀軌의 床차림構成과 純祖 27年부터 光武 6年까지의 13종 儀軌에 대하여 음식종류의 頻度와 材料를 分析하는 방대한 作業을 하여 宮中 宴會食 연구의 基礎資料를 提供하였다.

그리고 筆者는 金春蓮²¹⁾이 소개한 「園幸乙卯整理儀軌」의 日常食에 관한 報告에 따라 同書속에 함께 기록되어 있는 華城行宮奉壽堂進饌·華城行宮 洛南軒 養老宴·惠慶宮誕辰 慶賀進饌의 儀軌에다 다시 宮中 宴會食의 膳錄 7종을 追加한 총 27종의 宴會食 기록을 여기서 해설한다.

숙종 45年의 進宴儀軌·英祖 20年의 進宴儀軌·영조 41年의 受爵儀軌·純祖 9年의 惠慶宮進饌所儀軌 등은 名稱이 儀軌이지만 記錄展開法이 오히려 膳錄에 가깝고 園幸乙卯整理儀軌와 順宗 27年 受爵儀軌부터는 宴會食의 儀軌의 體制를 갖추게 된다. 現存하는 宴會食의 儀軌 및 膳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肅宗 45年(1719) 己亥	進宴儀軌
英祖 20年(1744) 甲子	進宴儀軌
英祖 41年(1765) 乙酉	受爵儀軌
英祖 41年(1765) 己酉	景賢堂受爵時膳錄
正祖 19年(1795) 乙卯	華城行宮奉壽堂進饌
正祖 19年(1795) 乙卯	華城行宮洛南軒養老宴
正祖 19年(1795) 乙卯	惠慶宮誕辰慶賀進饌
純祖 9年(1809) 己巳	惠慶宮進饌所儀軌
純祖 27年(1827) 丁亥	慈慶殿進饌整理儀軌
純祖 28年(1828) 戊子	進爵儀軌

13) 諸洪圭(1975), 園幸乙卯整理儀軌와 華城城儀軌의 版圖, 月刊文化財 1975. 12.

14) 李盛兩(1983) 朝鮮時代 調理書의 分析的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5) 李孝枝(1985) 朝鮮王朝 後期の 宮中 宴會飲食의 分析的考察, 修學社.

純祖29祖(1829)	己丑	進饌儀軌
憲宗14年(1848)	戊申	進饌儀軌
高宗5年(1868)	戊辰	進饌儀軌
高宗10年(1873)	癸酉	進饌儀軌
高宗14年(1877)	丁丑	進饌儀軌
高宗24年(1887)	丁亥	進饌儀軌
高宗24年(1887)	丁亥	進饌膳錄
高宗29年(1892)	壬辰	進饌儀軌
高宗29年(1892)	壬辰	內外進饌膳錄
高宗30年(1893)	癸巳	內外進饌膳錄
光武5年(1901)	辛丑	進饌儀軌
光武5年(1901)	辛丑	進宴儀軌
光武5年(1901)	辛丑	內外進宴膳錄 第1冊
光武6年(1902)	壬寅	咸寧殿 進宴儀軌
光武6年(1902)	壬寅	內外進宴膳錄 第2冊
光武6年(1902)	壬寅	進宴儀軌
光武6年(1902)	壬寅	內外進宴膳錄 第3冊

1. 進宴儀軌

肅宗45년(1719) 己亥

숙종(1661~1720)이耆老所에 들어가게 됨을 경축하는 進宴에 관한 기록이다.

耆老所란 조선시대에 나이 많은 임금이나 實職에 있는 70才이상이고 正2品이상의 文官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마련한 일종의 敬老所로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의 초상을 걸어두고 田土와 노비가 하사되었는데, 歷代 王 가운데서는 태조·숙종·영조·고종만이 기로소에 들어갔다.

숙종은 숙종45년 2월12일 기로소에 들어가므로서 王世子가 百官을 이끌고 글을 올려 축하하였다.⁽¹⁶⁾

이 儀軌의 卷1은 啓辭·論賞·甘結·移文·來關 등의 차례로 기록되어 있다. 4월3일 領議政이하 각 大臣들이 進宴을 간청하는 啓를 올렸으나 王의 眼疾 때문에 보류되었다가 9월2일에야 규모를 줄린 進宴을 운허하므로서 각 부서의 責任者와 초청자의 選定, 음식준비등이 진행되어 세 차례의 習儀(予行練習)를 거쳐 9월28일 景賢堂에서 進宴이 베풀어졌다.

大殿에 올리는 饌案·小膳과 일곱차례 술잔을 올림에 따른 음식명과 舞樂이 기록되어 있다. 第1爵→進饌頭, 第2爵→進湯, 第3爵→進湯, 第4爵→進湯, 第5爵→進湯, 第6爵→進湯, 第7爵→進大

膳의 차례이다. 그리고 卜定物種秩에 의하니 實蓮子·皮栢子·實栢子·生梨·松花末·全饌·乾文魚 등을 內資寺·內膳寺·禮賓寺·司饗院등에 납입하고 있다. 卜定이란 상급관청에서 貢物이외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급관청에서는 각 지방의 토산물을 강제로 납입하는 일을 말한다.

卷2에는 1房·2房의 차례로 기록되어 있고, 3房的 기록은 없다. 進宴의 行事는 3房으로 分房하는 것이 常例이다. 1房은 風物, 2房은 饌膳排設, 3房은 儀註·儀仗·班次圖등을 말한다. 儀註는 나라의 典禮의 절차를 적은 것인데, 이것을 따로 적어 읽어내리면서 典禮를 진행시키는 單子를 笏記하 한다. 또 班次圖란 儀式에서 文武百官이 늘어서는 차례를 적어 놓은 圖式을 가리킨다.

2房所掌은 大殿果床 1坐(饌案床 1坐·味數 5味에 每味 7器式·別行果 1坐·大膳 3器·小膳 3器), 世子宮饌案床 1坐, 外宴床 190床(味數 5味에 每味 3器式, 每床大肉 1升式), 侍衛別宜床(35床, 每床藥果 3升式), 之次床(37床, 每床藥果 1升式), 軍兵(1179名, 酒肴分饌) 등의 기록이 있고, 또 이들을 配列하는 食卓·容器등에 관한 기록이 있으며, 淸蜜·白淸 등등의 卜定物種이 기록되어 있다. 또 小藥果·白細漢果·鮮熟片 등 饌品의 종류와 그 廻方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책을 抄出하여 現代文으로 풀이해놓은 것이 「韓國生活科學研究」⁽¹⁷⁾에 수록되어 있다.

2. 進宴儀軌

英祖20年(1744) 甲子

英祖(1694~1776)가 在位(1724~1776) 20年 되었던 英祖20年 51才에 耆老社에 들어갔고,⁽¹⁸⁾ 숙종의 第2계비인 仁元王后(1687~1757)의 57周 되는 誕日을 아울러 祝賀하기 위하여 現任과 前任의 大臣과 耆老所의 諸臣, 正2品이상의 官職과 東所의 軍職이라도 70才이상인 사람은 모두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고 庶民 80才이상인 사람들에게는 米肉을 下賜하였다.

卷1의 啓辭秩에 의하니 10월4일, 10월7일의 進宴은 內宴을 光明殿, 外宴을 景賢堂에서 거행키로 하였다.⁽¹⁹⁾ 內宴(內進宴)은 內賓(안손님, 대궐진

(16) 숙종실록 숙종45년 2월 乙卯, 承政院日記 康熙58年 2月 12日.

(17) 李盛雨·李孝枝·趙駿河(1984), 進宴儀軌, 韓國生活科學研究 No. 2, 漢陽大學校 韓國生活科學研究所.

(18) 英宗實錄 卷60 英宗20年 9月 癸未·甲申, 承政院日記 乾隆9年 9月 9日, 國朝寶鑑 卷63 英祖朝 7 英祖20年 9月.

(19) 英宗實錄 卷60 英宗20年 10月 丁未, 承政院日記 乾隆9年 10月 4日, 樂坡漫錄 卷89 英宗朝 20年 甲子 10月, 芝陽漫錄

壬卷 英宗甲子 10月.

치에 참여하는 命婦들)을 모아 베푸는 宴會이고, 外宴(外進宴)은 外賓(대궐잔치에 참여하는 朝臣)만 모여 하는 宴會이다. 9월 12일에 掌樂院에서는 第1爵에서 第7爵을 진행시키는 舞樂과 殿下出宮奏·與民樂慢(第1爵~第9爵)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習儀日字와 進宴의 각 담당자의 관직·성명과 各道에서 차출된 妓生들의 이름·나이까지 기록되어 있다.

卷2에는 進宴에 소요되는 각 부서의 物目(剪刀·陶東海·沙鉢·陶所羅·瘡皮·引刀·鼎·茶甬兒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 光明殿 內宴에 大王大妃殿(果床1坐, 饌案床1坐, 別行果床1坐, 味數7味에 每味7器, 大膳1卓3器, 小膳1卓3器)·大殿·中宮殿의 3殿과 世了宮·嬪宮·賢嬪宮의 3宮을 위하여 마련한 飲食과 여러 物目에 관한 기록, 外宴을 위하여 마련한 飲食과 여러 物目도 기록되어 있다.

稟日秩에는 각종 飲食(三色餅 등)이나 연모의 재료가 기록되어 있으며, 卜定秩에는 各道에서 올리는 여러 食品(淸蜜·石榴·鳳全卜·大全卜 등)의 數量과 織物·盤 등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英祖19年の 王朝實錄에 의하니 宴會食에 柚子를 사용토록하고 封進된 것이 없을 때는 다른 果物로 代한다고 하였다.

한편 宮中宴會를 위하여 各道の 妓女를 차출한다는 기록이 「英祖實錄」²⁰⁾에도 나오는데 이런 일은 韓末까지 이어졌다. 李蘭香²¹⁾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 明月館」에 의하니 韓末의 宮中宴會에 관하여 그 모습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1909년에 開業한 明月館의 첫 주인인 安淳煥은 당시 宮內府 奏任官 및 典膳司長으로 있으면서 御膳과 饗宴을 맡아 궁중요리에 반 평생을 보낸 사람이라 한다. 그런데 이 책의 필자 李蘭香은 말하기를 “13歲에 평양에서 妓籍에 오르고 純宗을 위한 進宴 때문에 서울로 뿔뿔 올라와서는 奉常寺에서 정자춤·船遊歌 등 進宴준비에 열중하였고, 나라에서는 황관몽두리와 연두색 치마저고리 등 의복 일습을 받았다. 이러한 행연습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왜인들은 純宗이 옛일을 다시 되새길까 두려워하여 進宴의 行事를 중지시켰다. 妓女로서는 進宴에 참가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이 때 대감들의 눈에

들면 금방 마나님으로 불리는 신분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왜인때문에 직접 進宴에 참가하지는 못 하였으나 進宴에서의 妓女들이 하는 일을 간단히 설명하기로 “8道에서 모인 名妓들이 두줄로 갈라서고 그 앞에 임금이 정좌하게 된다. 임금 맞은 편에는 장악원 악사들이 피리·젓대 등 각종 악기를 들고 앉아 있으며 그 앞에 4명의 기녀가 무고를 둘러싸고 앉는다. 악사들은 악기를 켜고 다른 기생들이 노래를 부르면 일부 기생들이 춤을 추기 시작한다. 이 때 추는 춤을 정자춤이라 한다. 춤이 한참 무르익은 다음에 拋毬樂이라는 놀이가 시작된다...”고 하였다.

3. 受爵儀軌

英祖41年(1765) 乙酉

英祖의 나이가 71歲에 左位 41年을 축하 하기 위하여 王世子(正祖)의 상소와 王世孫·政憲·宗親府들의 수 차례에 걸친 상소 끝에 英祖41年 10월 4日 大殿受爵의 允許를 받아 10월 11日 景賢堂에 設行한 宴會²²⁾에 관한 기록이다. 이 宴會는 전체적인 규모를 축소시키라는 임금의 지시에 따라 進宴이 아닌만큼 進宴廳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堂上官으로서도 禮判·戶判·掌樂提調 등이 차례로 맡고 있으니 受爵儀軌라 하였다.

日錄은 啓辭·論賞·來關·甘結에 이어 1房·2房·3房의 儀軌, 別工作·內資寺·內贍寺·禮賓寺·司畜署의 儀軌의 차례이다.

卷1에는 大殿과 中宮의 受爵 및 習儀의 日時와 場所, 각 部署 責任者의 官職·姓名, 王世孫이 올리는 上疎文 등등의 宴會의 儀式節次·人員·物目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進宴時에 戶曹에서 준비할 饌品의 기록을 들어보면, 大卓에 漢藥果·白茶食·紅味子·白味子·亂散果·赤白果·煎茶食·雲水果·銀正果·軟杏仁果·栢子·乾柿·大棗·實胡桃·實蓮子·小小梅菓果·饅頭果·小小果·杏仁果·兩面果 등이 쓰이고, 饌案에 藥果·紅味子·白銀正果·粉松花茶食·紅茶食(以上 御筆全減)·大全腹折·大文魚折·鴨子·生雉煎油魚·生鮮煎油魚·三色餅·生薑正果·蓮根正果·天門冬正果·薯蕷·紅柿·乾大蝦·熟全腹·水正果·菜 등이 쓰인다.

20) 英宗實錄 卷58 英宗19年 7月 戊戌.

21) 李蘭香(1977)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明月館), 中央日報社.

22) 英宗實錄 卷106 英宗41年 10月 癸丑. 承政院日記 乾隆30年 10月 11日. 備邊司謄錄 英宗乙酉年 10月 11日. 芝陽漫錄壬卷 英宗乙酉 10月.

卷2는 1房以下の儀軌가 기록되어 있는데 各部署의 책임자의 성명과 임무·절차·物目등이 수록되어 있다.

2房의례의 기록에 의하니 景賢堂 受爵時의 大殿 饌案床 1坐을 內賓寺에서 마련하고 味數 1束을 司饗院에서 마련하는데 初味는 糲 1器·紅柿 1器·水正果 1器, 再味는 悅口子湯 1器·蒸豚 1器·葡萄 1器, 三味는 饅頭 1器·色於音炙 1器·生栗 1器가 각각 쓰인다.

內賓寺의례에는 生雉煎油魚·熟全鮑·生薑正果·水正果의 処方이, 內瞻寺의례에는 熟設에 쓰는 器皿雜物과 浣子湯의 処方이, 禮賓寺의례에는 木桶의 処方·初味(黃肉於音炙)·二味(頭蹄)·三味(三魚湯)가 각각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英祖41年의 受爵에 관하여는 의례 이외로 「景賢堂受爵時膳錄」이 따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4. 華城行宮 奉壽堂進饌

正祖19年(1795) 乙卯 (園幸乙卯整理儀軌에 수록)

正祖가 慈宮을 모시고 華城 顯隆園에 行次하였을 때 王은 윤 2月13日 慈宮을 위하여 華城行宮의 奉壽堂에서 頌壽進饌宴을 베풀었는데²³⁾ 이 때의 饌品이 「園幸乙卯整理儀軌」에 수록되어 있다. 慈宮殿進御饌案·大殿進御饌案·郡主宴床·內外賓及諸臣以下宴床의 食單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養老宴饌品〕 윤 2月 14日에는 洛南軒에서 養老宴이 베풀어졌는데²⁴⁾ 이 때의 饌品이 역시 「園幸乙卯整理儀軌」에 기록되어 있다. 御床 1束에는 湯 1器(豆泡湯), 片肉 1器, 黑太蒸 1器, 實果 1器(生梨·乾柿·生栗)이며, 老人床 425束을 차렸는데 각 床이 4器로서 湯 1器, 片肉 1器·黑太蒸 1器·實果 1器로서 御床과 같다.

5. 惠慶宮誕辰慶賀進饌

正祖19年(1795) 乙卯 (園幸乙卯整理儀軌의 附編)

慈宮(思悼世子妃 惠慶宮)의 回甲誕辰를 맞아 6月 18日 明政殿 月臺와 延禧堂에서 陳賀·進饌의 儀式을 거행하였을 때²⁵⁾의 기록이다.

日錄은 傳教·筵說(延席에서 임금의 자문에 답하여 올리는 말)·樂章(附詩)·致詞·箋文·儀註·節目·啓辭·饌品·器用·排設·內外賓·進饌時掌郎員役·賞典의 차례이다. 都提調는 領議政 洪榮性, 堂上에 李命植의 6명이다.

饌品에는 慈宮進御饌案, 慈宮進御別味床, 內人 1束, 內人 2束, 內人 6束, 內外賓束, 朝廷床, 侍衛百官束, 儒生 將官將校以下員役軍兵에 내놓은 飲食의 종류가 細註(材料및 그分量)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6. 惠慶宮進饌所儀軌

純祖 9年(1809) 己巳

正祖의 慈宮인 惠慶宮의 冠禮回甲(1月 22日)을 축하하는²⁶⁾ 儀軌로서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唯一本이다. 座目·伝教·啓辭·移文·來關·儀註·甘結·賞典의 차례로 기록되어 있다. 이 儀軌에는 饌品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고 儀式的 進行에 관한 기록뿐이다. 이것은 儀軌라기 보다 오히려 膳錄에 가까운 形式이다.

7. 慈慶殿進爵暨禮儀軌

純祖 27年(1827) 丁亥

순조 27年 王世子(후의 憲宗)가 代理應政하면서 父王인 순조(1970~1834)의 尊號를 淵德顯道景仁純禧, 王妃(純元 王后 金氏 1789~1857)에게 明敬이란 尊號를 올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 다음 날인 9月 10日 慈慶殿에서 進爵禮를 올리고, 王世子·王世子嬪이 行禮하였는데²⁷⁾ 이 때의 儀式에 관한 여러 기록이다.

이 儀軌는 圖式이 있는 整理字 刊本으로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것과 內客이 같은 筆寫本이 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어서 이것의 表紙名은 그냥 進爵儀軌이다.

이 의례에 수록된 筵說에 관한 기록에 의하니 禮曹判書 趙鍾永이 말하기로 進宴과 進饌은 모두 獻爵禮를 갖는데 금번은 小爵으로서 慶祝하는 것이기에 進宴이나 進饌이란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니 進爵의 禮는 이 때 처음 생긴 것이고, 英祖

23 正宗大王實錄 卷42 正宗 19年 乙卯 閏 2月 乙未, 李義平 華城日記 姜漢永校註(1974) 新丘文化社.
24 正宗大王實錄 卷42 正宗 19年 乙卯 閏 2月 丙申.
25 正宗大王實錄 卷42 正宗 19年 乙卯 6月 丁酉.
26 純宗實錄 卷12 純宗 9年 正月 壬午, 日省錄 純宗 己巳年 正月 22日, 承政院日記 嘉慶 14年 正月 22日.
27 純宗實錄 卷2 純宗 27年 9月 壬子, 日省錄 純宗 丁亥年 9月 10日, 承政院日記 道光 7年 9月 10日, 文祖東宮日記 丁亥 9月 10日.

41년의 受爵의 禮는 이 보다도 더 간소한 것 같다.

그런데 이 進爵의 禮는 앞으로 進爵禮를 하는데 규범으로서 만들었기에 整禮儀軌라 한 것 같다.

卷首에는 總目·擇日·座目(자리차례를 적은 목록)·凶式이 실려 있는데, 擇日에는 大殿과 中殿에 進爵하는 日時와 場所(慈慶殿) 및 習儀日時와 場所가 기록되어 있고, 座目에는 整禮所設置場所(工曹)와 堂上(禮曹判書 趙鍾永·戶曹判書 朴宗薰)과 郎廳(戶曹正郎 鄭淵始 등 7名) 및 書吏·使令 등의 이름과 儀軌所設置의 場所(校書館)와 校正堂上·郎廳 등의 官職·姓名 등이 실려 있다. 凶式에는 慈慶殿凶·慈慶殿進爵凶·殿內凶·採花園·器用凶·儀仗凶·樂器凶·服飾凶 등 43面이 실려 있다.

卷1에는 下命·筵說·致詞·樂章·儀註 등이 실려 있는데 致詞에는 世子가 지은 兩殿致詞를 비롯하여 公主致詞·宗親致詞 등 8 편과 樂章에는 慈慶殿進爵先唱樂章 등의 2 편, 儀註에는 進爵行禮의 제반 절차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卷2에는 達辭·移文·來關·稟目·甘結·饌品·器用·修理·排設·儀仗·內外賓·儀衛·工伶·賞典 등이 기록되어 있다. 饌品으로서는 內熟設所(建連堂·厨院(司饗院의 別稱)·熟設所(中正門內)에서 大殿·中宮殿·世子宮·世子嬪宮·翁主·公主·內外賓·朝廷·女官·統長·女伶·門旗手 등등을 위하여 마련할 각종 飲食을 各床別로 細註와 함께 기록하고 있다.

8. 進爵儀軌

純祖28年(1828) 戊子

순조 28년 純祖妃 純元王后 金氏(1789-1857, 憲宗의 祖母)의 室令 4句의 해를 기념하여 2월12日 慈慶殿에서 設行된 進爵儀式²⁹⁾과 6월1日 演慶堂에서 設行된 2次에 걸치는 進爵儀式³⁰⁾에 관한 의례를 合冊한 것이다.

活字本과 寫本의 2종류가 규장각·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바 필사본에는 凶式이 없다.

卷首에는 日錄·擇日·座目·凶式이 수록되어 있는데, 凶式은 매우 세밀하고, 內容이 다양하며 당시

의 宮中儀制(服飾·器物·樂器·呈才에 나타난 舞圖 등)의 모습을 엿 볼 수 있다.

卷1에는 令教·筵說·樂章(附呈才樂章)·致詞·箋文·儀註·事目 등이 수록되어 있고, 卷2에는 饌品(附綵花)·器用·修理·排設·儀衛·內外賓·樂器風物·工伶·賞典 등이 수록되어 있다.

附編은 純元王后의 탄신일에 演慶堂에서 거행된 進爵儀式을 별도로 기록·合編한 것으로, 內容의 차례는 慈慶殿의 경우와 비슷하다. 그리고 이에 관한 圖式은 卷首 圖式에 附編으로 수록되어 있다.

9. 進饌儀軌

純祖29年(1829) 己丑

순조28年(1828) 11월16日 王世子(후에 翼宗으로 追尊)가 純祖의 聖壽40, 登極30年을 맞이하여 進饌할 것을 논의하여 21日에 上疎하나 允許를 받지 못하고 24日에 再疏하니 王은 明年에 擇日하여 各儀節을 해당하는 曹에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순조29年 2월9日에는 大殿 外進饌이 明政殿에서, 2월12日에는 內進饌·夜進饌이 慈慶殿에서 設行되었고, 또 2월13日에는 王世子 會酌이 慈慶殿에서 設行되었다.³¹⁾ 또 6월19日 大殿進饌과 夜進饌이 慈慶殿에서 設行되었다.³²⁾

卷首는 擇日·産目·凶式으로 이루어지고, 卷1은 睿疏·(王世子나 王世孫의 疏)·令教·筵說·樂章·致詞·箋文·睿製聯句·儀註·節目·啓辭·達辭(王世子가攝政할 때 임금에 아뢰는 글)·申目(王世子가 섭정할 때 判書·兵使·監司들이 올리는 중요한 문서의 제목)·移文·來關, 卷2는 稟目·甘結·饌品·器用·修理·排設·儀仗·儀衛, 卷3은 進爵參宴諸臣·內外賓·工伶·樂器風物·賞典·財用으로 이루어지고, 附編은 6월19日의 進饌內容이 기록되어 있다. 차례는 擇日·令教·樂章·致詞·儀註·移文·饌品·綵花·器用·修理·排設·儀衛·工伶·賞典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李裕元(1814~1888)의 「林下筆記」 卷15에서 말하기로 國家의 宴禮는 일반적으로 九進饌이라

29) 純宗實錄 卷30 純宗 28年 2月壬午. 日省錄 純宗 戊子年 2月12日. 翼宗代聽時日錄 純宗 戊子年 2月12日·13·15日. 承政院日記 道光 8年 2月12·13·15日. 文祖東宮日記 卷4 戊子 2月12日.

29) 純宗實錄 卷30 純宗 28年 6月丙戌. 日省錄 純宗 戊子年 6月18日. 翼宗代聽時日錄 純宗 戊子年 6月18日. 承政院日記 道光 8年 6月18日.

30) 純宗實錄 卷30 純宗 29年 2月癸酉·丙子·庚辰. 日省錄 純宗 己丑年 2月9·12·13日. 翼宗代聽時日錄 純宗 己丑年 2月9·12·16日. 承政院日記 道光 9年 2月9·12·16日.

31) 純宗實錄 卷30, 純宗 29年 6月庚辰. 日省錄 純宗 己丑年 6月18日. 翼宗代聽時日錄 純宗 己丑年 6月18日. 承政院日記 道光 9年 6月18日.

하여 9回 饌을 올리는데, 이것은 饌案·大卓·大膳·小膳·別行果·饅頭·割肉·塩水·湯塩水들이며, 塩水を 黃鵝로 만든 것을 塩水唐雁湯이라 한다. 湯은 味數이다. 술잔을 올릴 때 味數가 따른다고 하였다.

宮中宴會席에는 高排床을 차려놓고, 主賓에 술잔을 9번 올리기도 하고 7번 올리기도 하는데, 술잔을 올릴 때마다 실제로 먹는 음식으로 구성되는 味數가 차례에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다.

순조27~29년의 宴會에서 大殿에 올리는 饌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純祖27年: 饌案·小盤果·別行果·味數·進塩水唐雁湯
- 純祖28年: 饌案·小膳·大膳·果榼·別盤果·湯·別行果·味數·饅頭·茶·小盤果·別味
- 純祖29年: 饌案·味數·湯·饅頭·別行果·塩水·小膳·大膳

이들 가운데서 饌案·小盤果·果榼·別行果 등은 실제로 먹는 것이 아니고, 차려놓고 바라보는 이른바 望床이고, 실제로 먹는 것은 味數·湯塩水·小膳·大膳·湯·饅頭·茶 등이다.

10. 進饌儀軌

憲宗14年(1848) 戊申

헌종14년은 大王大妃 純元王后 金氏의 宝令이 6旬이고, 王大妃(翼宗妃)의 宝令이 望 5 (41歲) 되는 해이다. 王은 純祖와 翼宗에 尊號를 追上하고 또 大王大妃와 王大妃에도 尊號를 加上하게 되었는데, 이 尊號를 追上·加上하고 그 다음 날엔 이들을 아울러 慶祝하기 위하여 베푼 進饌儀式에 관한 의례이다.

進宴·進饌의 儀式은 대개 王世子가 大殿에 올리는 경우가 많으나 이 進饌은 王인 憲宗이 親히 大王大妃殿에 술잔을 올리고 있으니 다른 進饌儀式과는 다른점이 많다.

進饌正日은 3月17日 卯時, 夜進饌은 같은날 2更, 大殿會酌은 3月19日 卯時, 夜燕은 같은 날 2更 通明殿에서 設行되었다.¹³³⁾ 그리고 通明殿에서 2月11일부터 3月10일까지에 걸쳐 7번의 習儀가 있었다.

이 의례의 내용을 보면 卷首에 擇日·座目·圖式이 있고, 卷1은 伝教·筵說·樂章·致詞·箋文·儀註·啓辭·啓目·移文·來關으로 구성되는데, 伝教

와 筵說을 통하여 進饌儀式을 배풀게 된 경위와 事情 그리고 준비과정에 있었던 論說등을 상세히 알 수 있고, 致詞는 御製通明殿進饌時親上致詞를 비롯한 12通이 作成되었으며, 儀註에는 上記 4回의 宴會의 절차가 적혀있다.

卷2에는 稟目·甘結·饌品(附綵花)·器用·修理·排設, 卷3에는 儀仗·儀衛·内外賓·問安諸臣·工伶·樂器風物·賞典·財用 등이 기록되어 있다.

11. 進饌儀軌

高宗5年(1868) 戊辰

고종5년에 고종(1851~1919)이 大王大妃(翼宗妃) 神貞王后 趙氏(1808~1890)의 回甲을 맞이하여 이를 祝賀하기 위하여 12月6日 未時에 內進饌. 12月11日 卯時에는 大殿會酌등을 康寧殿에서 設行하였는데 그 儀式¹³⁴⁾에 관계되는 의례이다.

2卷·卷首合 3冊의 필사본인데 圖式만은 印刷版이다. 座目에 進饌所는 宗親府에 두고 進饌堂上은 李最應 등 3名, 郎厅은 李起稿 등 9명, 女伶牌將 劉鎮國 등 11명과 그 외에 書吏·庫直·使令 등의 姓名이 적혀있다.

卷首에는 目錄과 擇日·座目·圖式이 있으며 卷1에는 伝教·樂章·致詞·箋文·儀註·啓辭·稟目·甘結·修理·排設 등, 卷2에는 饌品·綵花·器用·樂器·風物·賞典·財用 등이 기록되어 있다.

12. 進爵儀軌

高宗10年(1873) 癸酉

고종10년에 거행한 進爵儀式에 관한 의례이다. 卷2만 남아있는 零本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이 進爵의 배경을 알 수 없으나 高宗太皇帝實錄 등¹³⁵⁾을 통하여 高宗10年 4月17日 乙丑에 王이 勤政殿에 나와서 大王大妃·王大妃에 尊號를 加上하고 王 스스로와 王妃도 尊號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본 의례 卷2에 康寧殿上號日別進饌이란 기록이 있음에 비추어 尊號를 받은 것을 축하하는 進爵儀式에 관한 의례임을 알 수 있다.

卷2의 수록내용은 饌品(附綵花)을 비롯하여 器用·各樣措備·修理·排設·儀仗·儀衛·内外賓·工伶·樂器風物·賞典·財用 등이며, 그 규모는 다른 進爵

132) 憲宗實錄 卷15 憲宗 14年 3月 辛卯, 承政院日記 道光 28年 3月 17日, 經山日錄抄 1, 憲宗 戊申年 3月 17日.

133) 高宗太皇帝實錄 卷5 高宗 5年 12月 6日.

134) 高宗太皇帝實錄 卷10 高宗 10年 4月 17日, 日省錄 李太王 癸酉年 4月 17·18·20日, 承政院改修日記 同治 12年 4月 17·18日, 備辺司雜錄 李太王 癸酉 4月 17日.

儀式과 큰 차이가 없으나 卷末의 財用條에서 經費支出 한도액을 규정한 것이 특색이다.

13. 進饌儀軌

高宗14年(1877) 丁丑

고종14년에 大王大妃(翼宗妃) 神貞王后 趙氏의 7旬·王大妃의 宝令望 5를 경축하기 위하여 12月 6日 辰時에 內進饌, 같은 날 2更에 夜進饌, 12月 10日 辰時 大殿會酌을 通明殿에서 設行한 進饌儀式³⁵⁾에 관한 의례이다.

내용은 擇日·凶式·座目과 進饌의 發議로부터 施行節次와 各房의 所管 分擔事項과 人員과 物目등 으로서 다른 進饌儀軌와 거의 같다.

14. 進饌儀軌

高宗24年(1887) 丁亥

고종24年 大王大妃 神貞王后 趙氏의 8旬을 축하하기 위하여 1月 13日에 尊號를 올리고³⁶⁾ 1月 27日 辰時에 大王大妃殿 內進饌, 같은 날 2更에 大王大妃殿 夜進饌, 1月 28日 辰時 王世子 會酌, 같은 날 2更에 王世子 夜燕이 각각 萬慶殿에 設行된 進饌儀式³⁷⁾에 관한 의례이다.

卷首에는 目錄·擇日·座目·凶式이 실려있고, 卷1은 伝教·筵說·樂章·致詞·箋文·儀註·事目·啓目·啓辭·移文·來關등, 卷2는 稟目·甘結·饌品·器用등, 卷3은 修理·排設·儀仗·儀衛·内外賓·問安諸臣·工伶·樂器風物·賞典·財用의 차례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필자들이 이 儀軌의 全文을 現代語 풀이한 것이 「韓國生活科學研究」³⁸⁾에 수록되어 있다.

한편 司饗院에서는 이 進饌儀式에 관한 「進饌譜錄」을 편찬하였는데 이것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15. 進饌儀軌

高宗29年(1892) 壬辰

고종 29년에 고종의 宝令望 5旬과 登極30年을 축하 하는 進饌宴을 베풀게 해달라는 王世子(純宗)의 거듭되는 上疏에 의하여 9月 24日 卯時에 外進饌

을 勤政殿에서, 9月 25日 辰時의 內進饌, 같은 날 2更의 夜進饌, 9月 26日 辰時의 王世子會酌이 각각 康寧殿에서 設行되었는데 이 儀式³⁹⁾에 관한 의례이다.

卷首에는 目錄·擇日·座目·凶式이 실려 있다. 座目に 의하니 差出된 進饌所의 堂上·郎廳·別看役·牌將·計士·書吏·書寫·庫直·使令·文書直·使喚軍 등의 官職·姓名이 적혀있다.

卷1에는 睿疎·伝教·令教·筵說·入對筵說·樂章(附呈才樂章)·致詞·箋文·睿製詩·儀註가 기록되어 있는바 樂章에는 王世子가 지은 樂章 8편과 呈才樂章 22편이 실려있고, 致詞도 13편, 睿製詩에는 王世子の 七言絶句 2首와 여러 臣下들의 200余首의 詩가 실려있다.

卷2에는 節目(附事目)·啓辭·啓目·申目·移文·來關·稟目·甘結·饌品(附綵花)·器用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饌品條에는 熟設處所의 선정과 각 殿·宮과 朝臣들의 宴會時 床數와 器數들이 기록되어 있는바 예를 들면 勤政殿의 外進饌時 大殿에 올리는 饌品은 大卓饌案(25器), 饌案(15器), 別行果(15器), 味數(9味 每味數 各 7器), 茶(雀舌茶 1器), 塩水(1器), 小膳(2器), 大膳(2器), 湯(1器), 饅頭(1器) 등이다. 大殿 및 世子官의 饌品·參宴諸臣의 外宣床·參班諸臣의 宣醞床·侍衛陪衛各差備及典樂以下樂工 등의 賜饌·將官將校以下員役軍兵饋饌등은 繼照堂 앞마당에 마련한 假家 180間의 厨院外熟設所에서 만들게 되었다. 또 康寧殿의 進饌에 쓰이는 饌品은 光四門內에 마련한 假家 141間의 內熟設所에서 만들었다. 그리고 儀式에 쓰이는 盤·器皿·雜物등도 기록되어 있다.

卷3에는 修理·排設·儀仗·儀衛·進爵參宴諸臣·内外賓·問安諸臣·工伶·樂器風物·賞典·財用등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규장각에는 「内外進饌膳錄」(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이것은 고종29年 9월에 베풀어졌던 勤政殿 外進饌과 康寧殿 內進饌에 대하여 관계되는 官衙에서 司饗院에 보낸 7月~10月 사이의 公文書를 수록한 司饗院의 膳錄이다.

그리고 高宗29年의 進饌儀軌에는 甘花富·卵裏·絞珠등 색다른 料理名이 보인다. 甘花富는 日本語

35) 高宗 太皇帝實錄 高宗14年 12月 6日. 日省錄 李太王 丁丑年 12月 6日. 承政院改修日記 光緒3年 12月 6日.

36) 高宗太皇帝實錄 卷24 高宗24年 正月 13日. 日省錄 李太王 丁亥年 正月 13日.

37) 高宗太皇帝實錄 卷24 高宗24年 正月 27日.

38) 李盛兩·李孝枝(1985·1986), 進饌儀軌, 韓國生活科學研究, No. 3·4, 漢陽大學校 韓國生活科學研究所.

39) 高宗太皇帝實錄 卷29 高宗 29年 9月 24·25日. 日省錄 李太王 壬辰年 9月 24·25日. 承政院日記 光緒 18年 9月 24日.

가마보고 곧 감화보금에서 온 말이다. 감화보금은 농어나 송어같은 생선의 살을 난도하여 퍼서 그 위에 양념한 채소를 놓고 말아서 썬 다음 가로 썰어 놓은 음식이다. 1740年代의 「諷聞事說」에 나온 可麻甫串와 같은 것이다. 또卵裏는 語義로 보아 알싸한 것 같다.

다음은 紋珠에 대하여 알아보자. 1800年代 말엽의 「시의 전서」에 호박문주가 나오는데 “주먹만한 어린 호박을 꼭지편을 깊이 도리고 정육을 양념하여 그 속에 넣고 꼭지를 도루 맞추어 썬다”고 하였다. 이로서 絞珠는 門柱이고, 문주에다 문을 끼우듯이 호박의 꼭지부를 도루 끼워넣는 料理인 것 같다. 이와같이 옛 料理名도 다른 料理, 書·詩文·料理材料名·語義·음등을 잘 견주어 고찰하여 보면 그 本体가 들어날 때가 많다.

16. 内外進饌膳錄

高宗30年(1893) 癸巳

고종30年 10月 4日 宣祖가 慶運宮에 選御한지 5回甲되는 날로서 英祖도 이 날을 기념하는 進饌儀式을 거행한바 있으니, 高宗도 10月 5日 勤政殿 外進饌, 10月 6日 康寧殿 內進饌, 10月 8日 康寧殿 內進饌, 10月 10日 繼照堂 外進饌등 네 차례에 걸쳐 베풀었던 内外進饌에 대하여 해당 官衙인 司饗院에서 이해 8월부터 준비에 착수하여 12월에 賞典이 내리기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한 膳錄이다.⁴⁰⁾ 그런데 進饌儀式에 관한 의례는 없고, 膳錄만 남아 있는 것이 異色的이다.

이 진찬등록은 戶曹가 主管하여 거행하고, 進饌時의 侍座排設및 儀仗에 관한 下教, 味數와 爵數의 결정 및 각 殿·宮의 進爵 차례등을 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10月 6日 內進饌時의 味數는 7味로 하고 進爵도 7회 하기로 되어 있다. 이밖에 進饌日字의 擇日·進饌時의 品目, 應參諸臣의 行禮處所와 大殿·王大妃殿·中宮殿·世子宮등 進饌處所의 선정, 그리고 左命婦所首 및 右命婦所首를 결정하는 문제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0月 5日 勤政殿 外進饌에 올리는 味數는 11味每味 3器로서 初味(饅頭果·茶食果中の 1器, 悅口子湯 1器, 片肉·猪肉·足餅中の 1器), 2味(五色茶食 1器, 莞子湯 1器, 生鮮煎油魚·生蟹中の 1器),

3味(三色梅花軟絲果 1器, 胖湯 1器, 各色 熟實果 1器), 4味……11味(五色鈴乾正 1器, 海參湯 1器, 龍眼·荔枝 1器)이다.

16. 進饌儀軌

光武 5年(1901) 辛丑

광무 5년 고종이 明憲太后洪氏(憲宗繼妃 1831~1904)의 誕8의 慶年을 축하하기 위하여 5月 13日 巽(손)時 內進饌, 同日 丑時 夜進饌, 5月 16日 巽時 大殿會酌, 同日 亥時 夜膳, 5月 18日 巽時 皇太子 會酌, 同日 亥時 夜膳 을 각각 慶運堂에서 베푼 進饌儀式⁴¹⁾에 관한 儀軌이다.

卷首에 目錄·擇日·座日·圖式이 실려있고, 卷1은 詔勅·筵說·樂章·致詞·儀註·事日·奏本·照會·訓令·來牒등, 卷2는 樂日·甘結·饌品(附綵花)·器用, 卷3은 修理·排設·儀仗·儀衛·内外賓·賜饌諸臣·工伶·樂器風物·賞典·財用등이 각각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慶運堂의 進饌儀式을 진행시키는 慶運堂進饌笏記가 서울大學校가람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建陽元年(1896)부터 우리나라도 陽曆사용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高宗太皇帝實錄은 이 해부터 陽曆으로 기록하였고, 進饌儀軌는 陰曆으로 되어 있으니 혼란이 생기기 쉽다.

17. 進宴儀軌

光武 5年(1901) 辛丑

광무 5년 고종의 탄생 50년의 慶年을 축하하기 위하여 7月 26日 卯時 外進宴, 7月 27日 辰時 內進宴, 同日 亥時 夜進宴, 7月 29日 辰時 皇太子 會酌, 同日 亥時 夜膳을 咸寧殿에 設行한 進宴儀式⁴²⁾에 관한 의례이다.

卷首에는 目錄·擇日·座日·圖式이 있으며 卷1은 睿疏·詔勅·令教·筵說·入對筵說·樂章(附呈才樂章)·致詞·製詩·儀註, 卷2는 節日·奏本·啓本·照會·來牒·樂日·甘結·饌品·器用, 卷3은 修理·排設·儀仗·儀衛·進爵參宴諸臣·内外賓·問安諸臣·工伶·樂器風物·賞典·財用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大韓帝國 당시의 宮中宴會에 관한 연구자료로서 그 以前의 進宴儀軌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

40 高宗太皇帝實錄 卷30 高宗30年 10月 6日. 日省錄 李太王 癸巳 10日 4·6日. 承政院日記 光緒 19年 10月 4·6日.

41 高宗太皇帝實錄 卷41 光武 5年 6月 28日.

42 高宗太皇帝實錄 卷41 光武 5年 9月 6日.

다. 특히 用語上 倭色이 짙어짐이 주목된다.

그리하여 光武 5年 9月에는 皇帝誕辰50年 稱慶 紀念章을 頒賜하였다.

그리고 이 進宴에 관한 膳錄이 「內外進宴膳錄」第 1冊으로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한편 進宴儀式은 王朝實錄·日省錄·備邊司膳錄에도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節次·物品·饌品 등을 서로 비교하면서 연구하는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王朝實錄을 훑어보면 宮中에서는 宴會와 祭祀가 계속되고 있으니 政治가 바로 宴會나 祭祀인양 착각할 정도이다.

18. 咸寧殿進宴儀軌

光武 6年(1902) 壬寅

고종이 황태자의 간청에 의하여 76으로서 耆老所에 入所하였다. 耆老所에 入所한 朝鮮朝의 임금으로서 太祖60歲, 숙종59歲, 영조51歲이니 고종도 光武 5年 51歲에다 在位 38年으로서 入所하게 되었다.⁴³⁾ 고종의 耆老所 入所를 기념하기 위하여 光武 6年 4月23日 卯時에 外進宴, 4月 24日 辰時에 內進宴, 같은 날 亥時에 夜進宴, 4月 25日 辰時에 皇太子會酌, 같은 날 亥時에 夜燕을 각각 咸寧殿에 設行한 進宴儀式⁴⁴⁾에 관한 儀軌이다.

卷首에 다른 의례처럼 目錄·擇日·座目·圖式이 실려있고, 卷 1은 睿疏·詔勅·令教·筵說·入對筵說樂章(附呈才樂章)·致詞·儀註, 卷 2는 節目(附事目)·奏本·啓本·照會(附訓令)·來牒(附來報)·稟目·甘結·饌品(附採花)·器用, 卷 3은 修理·排設·儀仗·儀衛·進爵參宴諸臣·內外賓·問安諸臣·工伶·樂器風物·賞典·財用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進爵者의 名單을 적어보면 “23日의 外進宴에서는 第 1爵→皇太子, 第 2爵→沈舜澤, 第 3爵→趙秉世, 第 4爵→尹容善, 第 5爵→李昇應, 第 6爵→閔泳韶, 第 7爵→金聲根, 第 8爵→李乾夏(內部大臣), 第 9爵→金永穆이며, 24日의 內進宴에서는 第 1爵→皇太子, 第 2爵→皇太子妃, 第 3爵→英王, 第 4爵→延原郡夫人, 第 5爵→貞夫人洪氏, 第 7爵→貞夫人李氏, 第 8爵→宗親班首完平君李昇應, 第 9爵→威臣班首特進官 金興領이다.

그리고 이 進宴에 관한 膳錄이 「內外進宴膳錄」第 2冊으로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進宴에 사용한 外進宴笏記·內進宴笏記·

夜進宴笏記·內進宴翌日 皇太子 會酌笏記가 서울大學校 가람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19. 進宴儀軌

光武 6年(1902) 壬寅

고종의 76과 即位40年の 兩慶을 맞이하여 11月 4日 巽時 外進宴을 中和殿에서, 11月 8日 巽時 內進宴, 같은 날 亥時 夜進宴, 11月 9日 巽時 皇太子會酌, 같은 날 亥時 夜燕을 각각 觀明殿에서 設行하는 進宴儀式⁴⁴⁾에 관한 儀軌이다.

10월에 베풀려던 進宴儀式이 호열자의 창궐에 의하여 11월로 연기되었던 것이다.

이 의례의 目錄은 다른 진연의례와 거의 같고, 이 진연에 관한 膳錄이 「內外進宴膳錄」第 3冊으로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이 등록에는 進宴의 日字 決定에 관한 上疏와 詔, 典膳司(從來의 司饗院)에서 度支部大臣에 饌品所入費 10萬圓을 청구한 내용 등이 보인다.

外勢에 짓밟혀서 國運이 風前證火와 같은 이 나라에서 1년에 두번이나 2年 연속으로 그리 多急하지도 않는 大宴會를 베풀고 있으니 國家의 滅亡을 재촉한 것 같지만 하다.

그리고 宴會食의 儀軌는 한국 특유의 群都目으로 적어 놓고 있다. 群都目이란 漢字의 뜻은 어찌되었던지 音과 새김을 따서 물건의 이름을 적는 방법으로 조선조의 胥吏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보기를 들어보면 助岳(주악)·強精(강정)·氷絲果(빙사과)·叉手果(차수과)·悅口子湯(悅口資湯)·足餅(족편)·片肉(편육)·朴古之(박고지)·月乃(달래) 등과 같다.

또 소의 部位名을 들어보면 內心肉(安心肉·안심육)·外心肉(등심육)·甫乙只(뽕只)·膾(膾양)·千葉·靈通(영통)·芻非(芻飛)·陽支頭(양지머리)·都干伊(도간이)·牛囊·廣大頭(광대머리)·葉脂潤(엽진)·豆太(콩팥) 등과 같다.

그리고 의례에 나오는 單位의 보기는 沙里(麵)·立(茶食)·鍾子·貼(躡柿·鳥賊魚)·片(人蔘)·部(猪胞)·半半部·脚(猪脚)·口(軟猪)·握(辛甘菜)·隅(太泡)·吐里(多士麻)·同合(搗糲)·本(蒜)·串(花陽炙)·級(眞耳)·芗(朴古之) 등과 같다.

IV. 外國使臣의 迎接食

朝鮮朝에서는 中國의 使臣을 위하여 임시로 迎接

43) 高宗太皇帝實錄 卷42 光武 6年 5月30·31日.

44) 高宗太皇帝實錄 卷42 光武 6年 12月 3·7·8日.

都監이란 職所를 마련하여 使臣의 宴享과 饋餉을 맡게 하였다. 「通文館志」에 의하니 使臣이 上京하여 回程까지 7회에 걸치는 公式의인 宴享이 베풀어지는바 첫째 下馬宴(太平館에 도착한 다음 날 太平館에서), 翌日宴(入京又翌日 太平館에서), 셋째 仁政殿請宴(入京第3日째), 네째 回禮宴(入京第4日째 太平館에서), 다섯째 別宴(入京第5日째 太平館에서), 여섯째 上馬宴(回程日字가 定해진 뒤 太平館에서), 일곱째 錢宴(回程日 太平館에서)이다. 仁政殿請宴은 王이 親行하고, 錢宴은 王이 親臨한다.

또 「通文館志」에 의하니 迎接都監에는 館伴·提調·都廳軍色·應辦色·宴享色·米麵色·飯膳色·別工作·雜物色·分內資寺·分內贖寺·分禮賓寺·司饗院·濟用監등등이 差出配置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通文館志」나 「國朝五禮儀」등은 迎接에 관한 儀式이 적혀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迎接食의 記錄이 없으니 迎接都監儀軌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迎接都監儀軌란 迎接都監에서 하는 일의 전말을 기록한 것이다. 儀軌以外로 膳錄도 남아있다. 이들은 임금이 崩御하였을 때 中國의 皇帝가 보내는 賜祭天使와 王世子·王世孫등의 封爵을 위하여 보내는 冊封天使의 儀禮에 관한 절차와 使臣을 접대하기 위한 饋品의 종류, 食品材料나 여러 物品의 조달, 人員의 동원, 접대하는 방법등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다.

조선조 宮中食의 모습을 宮中宴會食이나 日常食의 의례를 통하여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으나, 現存 最古의 文獻은 숙종 45年(1719)의 전연의례이다.

그러나 迎接都監의 의례나 膳錄은 光海君元年(1609)부터 仁祖21年(1643)까지에 걸치는 年代에 집중적으로 물려 現存되어 있고, 天使一行을 위한 日常食(中國式이 加味된 것)과 宴會食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들을 연구하므로써 從前보다 100余年이나 앞선 宮中食의 종류나 床차림을 짐작할 수 있다.

宮中食에 관계되는 迎接都監의 儀軌나 膳錄으로서 現存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光海君元年(1609) 迎接都監都廳儀軌
- 光海君元年(1609) 迎接都監米麵色儀軌
- 光海君元年(1609) 迎接都監盤膳色膳錄
- 光海君元年(1609) 迎接都監宴享色膳錄
- 光海君元年(1609) 迎接都監雜物色膳錄
- 光海君元年(1609) 迎接都監軍色膳錄
- 光海君2年(1610) 迎接都監米麵色膳錄

- 仁祖4年(1626) 迎接都監盤膳色儀軌
- 仁祖12年(1634) 迎接都監都廳儀軌
- 仁祖12年(1634) 迎接都監米麵色儀軌
- 仁祖12年(1634) 迎接都監盤膳色儀軌
- 仁祖12年(1634) 迎接都監宴享色儀軌
- 仁祖12年(1634) 迎接都監雜物色儀軌
- 仁祖12年(1634) 迎接都監應辦色儀軌
- 仁祖12年(1634) 迎接都監軍色儀軌
- 仁祖15年(1637) 迎接都監軍色儀軌
- 仁祖21年(1644) 迎接都監盤膳色儀軌
- 仁祖21年(1644) 迎接都監宴享色儀軌
- 仁祖21年(1644) 迎接都監雜物色儀軌
- 仁祖21年(1644) 迎接都監應辦色儀軌

1. 迎接都監都廳儀軌

光海君元年(1609) 己酉

光海君元年 4月 宣祖의 喪에 온 明나라의 賜祭天使⁴⁵⁾와 同年 6月에 光海君의 즉위에 온 冊封天使⁴⁶⁾의 영접에 대하여 영접도감에서 기록한 의례이다.

이 영접도감 도청의례는 앞뒤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앞 부분은 賜祭天使의 영접에 관한 기록으로서 內客은 使臣名·使臣日程·座目·都監事目·甘結·啓辭·賜祭時應行節目·儀註의 차례이고, 使臣名은 態化인데 1609年 4月 8日 越江, 4月 25日 入京하여 5月 6日에 回還하였다. 座目에 의하니 館伴은 兵曹判書 李廷龜, 都廳에 睦長欽 등 8名, 郎廳에 米麵色·宴享色·飯(盤)膳色·雜物色·應辦色·軍色 각 2~3名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各色(지금의 課나 係에 해당)이나 廳의 所掌과 그 작업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또 都監事目(事目은 公事에 관하여 정한 규칙)과 禮曹啓日(啓日은 上奏하는 글월을 올리는 글월에 붙이는 목록)이 있으며 4月 24日에 宴享, 4月 26日에 賜鑰·賜祭가 있다. 그리고 뒷부분은 冊封天使의 영접기록으로서 內容은 使臣名·日程·座目·啓辭·備忘記의 차례를 이룬다. 4月 25日 越江, 6月 2日 入京, 6月 19日에 回還하였다.

2. 迎接都監米麵色儀軌

光海君元年(1609) 己酉

광해군 元年의 賜祭天使와 冊封天使 영접 때의 米麵色儀軌이다. 米麵色은 영접도감의 한 부서로서 使臣에 제공하는 쌀·밀가루·茶·술·향약·등유·장작·器皿등을 담당한다.

內資寺에서 진상하는 食品은 赤豆·眞荏子·淸蜜

45) 光海君日記 卷15 乙酉 4月 丙子.

46) 光海君日記 卷17 乙酉 6月 辛亥. 大東野乘 卷40 光海朝日記 1.

·綠豆·綠豆末·香醞, 內贍寺의 것은 飛陋末·川椒·眞末·綠豆·淸酒·燒酒, 司導寺의 것은 粳米·白米·泡太·黃太·黑太·元味末·藪子, 東藉田의 것은 薏苡·黍米·黃粟米·青粟米·皮牟·大麥末·唐黍米·綠豆, 西藉田의 것은 粘白米·粘米末·稷米·唐黍末·黃粘粟米·黃粟米·綠豆, 禮賓寺의 것은 甘醬·赤豆·小麥·木麥末·綠豆, 掌花署에서 올리는 果實은 實柏子·實榛子·黃栗·實胡桃·皮生栗·皮胡桃 등이며, 典醫監에서 올리는 藥品은 淸心元·蘇合元·好合茵陳丸·香薷散·神保元·正氣散·態贈 등등이다. 그리고 太平館前排 및 新進排器皿으로서 鑰酒煎子·鑰鑪·鑰中火爐 등이 기재되어 있으니 이것을 통하여 16~17세기경 宮中の 食品材料·藥品·食關係 器皿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3. 迎接都監盤膳色膳錄

光海君元年(1609) 己酉

이 의례는 광해군元年 영접도감 盤膳色의 事日 결정과정과 事日의 內容, 그리고 1월부터 7월까지의 使臣접대과정을 날짜순으로 甘結·啓辭·稟目 등의 형식으로 각각 기록한 것이다.

盤膳色은 使臣을 접대하는데 실제로 음식을 마련하는 과정을 말하는 部署이다.

그 一部를 적어보면 賜祭使臣들 가운데서 祭物頭目(頭目은 무역을 목적으로 使臣을 따라 온 北京商人이다) 20名을 5名과 15名으로 나누고 5名에게 每日 1人當 大生鮮 1尾·猪肉 2斤·活鷄 2首·卵 5介·眞油 5合·소금 5合·良醬 5合·醋 4合·豆泡 9塊·生蔥 3丹·水斤 3丹·淸酒 大 1瓶·飯米 5升을 配當하고 器皿은 多加甲 5, 瓢子 5, 沙鉢 5, 沙貼是 5, 沙甫兒 5, 沙鍾子 5, 木盥 5, 木貼是 5를支給한다는 것이다.

4. 迎接都監宴享色膳錄

光海君元年(1609) 己酉

광해군元年에 영접도감의 宴享色에서 수행한 직무 처리에 관한 기록이다. 연향색은 외국손님을 위하여 베푸는 연회를 담당하는 部署이다. 이 등록에는 甘結·啓辭·稟目 등이 날짜순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先運(賜祭)·後運(冊封)으로 나누어져 있다.

內容은 영접에 소요되는 물품 및 그 조달에 관하여 內資寺·內贍寺·禮賓寺·司饗院 등과의 협조사항등이 기록되어 있다.

소요되는 器皿과 食品材料·잡물등은 內資寺·禮

賓寺·宴享色 등 각 부서 별로 그 소용에 따라 목록을 따로 뚜렷한 구분없이 수록하였는데 매로는 先運·後運으로 구분하여 실기도 하였다.

책 끝에는 天使의 下馬宴·上馬宴·左俠床·右俠床·面俠床의 排膳圖가 있다. 下馬宴은 使臣이 서울에 도착하여 말에서 내리자 베푸는 환영연이고, 上馬宴은 使臣이 일을 마치고 떠날 때 베푸는 연회이다. 또 天使請宴慰宴·翌日宴錢宴圖·天使謁聖書奉盃·遊觀時回外件床·頭目遊觀謁聖床·頭目各日宴享床 등의 圖式이 있다.

이 의례의 禮賓寺 所掌의 天使書奉盃謁聖時安酒入排四行床의 內容을 적어보면 1行은 藥果 4器(高7才), 2行은 實果 5器(各 1升), 3行은 鷄卵·魚肉 등 5器, 4行은 兩色乾南·菜·煎油 등 5器이고, 湯水로서 初味는 糲·生鮮炙·沈菜, 2味는 生鮮湯·鷄兒炙, 3味는 雙花·膾·筍子, 4味는 全鰓湯·兼煎餅·餅者, 5味는 點點果·別湯水이고 點點果는 계절에 따른다는 것이다.

또 司饗院에서 마련한 天使宴享 1次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進茶行果: 軟藥果 1器·全鰓折 1器·乾文魚 1器·乾雉折 1器·生鮮煎油兒 2器·生梨·實柏子·正果

11爵行果合22: 軟雲水果·全鰓折·乾文魚·乾雉折·實柏子·胡桃·生梨·正果·進塩水(唐雁塩水·小饅頭)·小膳(1盤 → 牛芻非·靈通·夫化·肝·太豆·末下, 1盤 → 羊 1口, 1盤 → 唐雁), 大膳(1盤 → 牛脚, 1盤 → 猪口, 1盤 → 唐雁)과 初味(細糲·沈菜·生鰓者只·生鮮炙·軟藥果·生梨·正果), 2味(唐雁塩水·唐猪醬泡·錦鱗魚炙·山蔘餅·實柏子·正果), 3味(生鮮於音湯·鷄兒醬泡·生鮓魚蒸·軟杏仁果·生粟·正果), 4味(生雉狄炙·魚饅頭·生鰓炙·松古餅·實胡桃·正果), 5味(唐猪塩水·鴨子熟片·軟藥雲水果·乾柿子·正果), 6味(生鮮煎湯·鷄兒熟片·乾海蔘蒸·自朴餅·大棗·正果), 7味(唐鴨子塩水·全鰓煮只·生鮮炙·軟味子兒·蒸黃粟·正果), 8味(山猪塩水·海蔘於音湯·鹿肉炙·煎餅·實榛子·正果), 9味(軟獐肉湯水塩水·生鰓煮只·山猪雪阿覓·小童桂·生梨·正果), 10味(獐肉熟片·生落蹄煮只·熟全鰓·丁香敬丹餅·實柏子·正果), 11味(鹿肉塩水·紅蛤煮只·獐肉炙·兩面果·實柏子·正果)

5. 迎接都監雜物色膳錄

光海君元年(1609) 己酉

광해군元年 영접도감의 雜物色에서 소관사무를

처리한 과정과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갑물색에서는 使臣들의 早飯·漢司饗·別厨·別應求·茶啖 등에 소 용되거나 관계되는 油淸·果餅·乾魚肉·蔬物·差備人·器皿·盤膳 등을 맡은 기관이었다. 漢司饗이란 中國에서 使臣과 함께은 料理人이니 그들이 먹는 料理엔 中國式도 있었던 것 같다.

雜物色에서는 使臣이 오기 전에 料理·床차림 등에 필요한 물건을 內賓寺·內贖寺 尚衣院·工曹 등에 맡겨 준비하고, 使臣을 영접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에 따라 준비한 물건 가운데서 부족한 물건을 마련하며, 使臣이 귀국한 후에는 실지로 쓰여진 물건

을 점검하고 확인한다.

그리고 이 등록에는 乾民魚·乾猪·紅蛤·石首魚·甘醬·胡椒·眞茸·石茸·早薑·甘苔·海衣·良醬·五味子·乾烏賊魚·藁古·醃水·淸醬·芥末·醬菹(菁根·茄子·瓜子·山蔘)·山蔘·水芹·泡太·螺醃·蛤醃·卵醃·沈菜·蓼芽·藿耳·乾松茸·昆布·古音月外(곰달래, 곰취)·是根菜·苦蕒·加士里·竹笋正果·猪頭·猪腸·辛甘菜·起酒·土卵 등의 飲食名이 보이고 그 밖에 많은 부엌세간의 이름이 보인다.

卷末에는 天使早飯床圖·天使飯奉床圖·天使茶啖床圖가 실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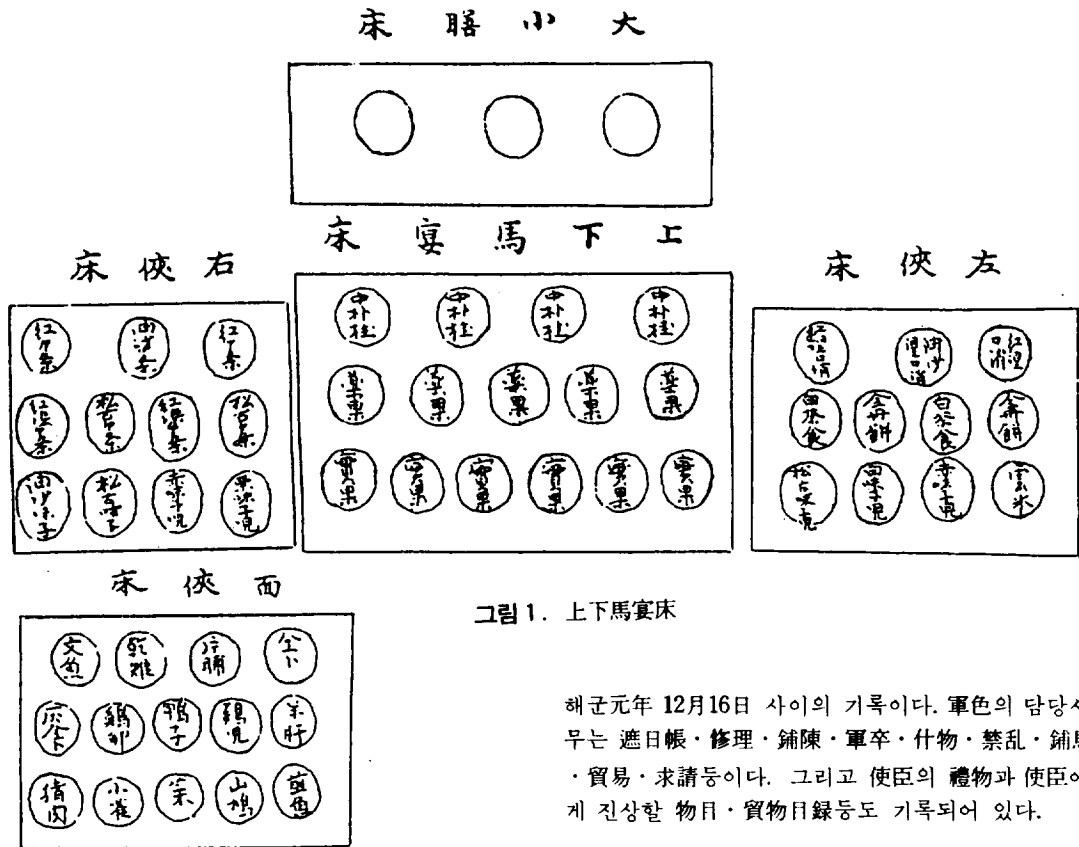


그림 1. 上下馬宴床

해군元年 12月16日 사이의 기록이다. 軍色의 담당사 무는 遮日帳·修理·鋪陳·軍卒·什物·禁亂·鋪馬·貿易·求請 등이다. 그리고 使臣의 禮物과 使臣에게 진상할 物目·買物目錄 등도 기록되어 있다.

6. 迎接都監軍色曆錄

光海君元年(1609) 己酉

광해군元年 영접도감 軍色의 所掌事의 등록으로 서 광해군 즉위(선조41년, 1608) 3月 26일부터 광

7. 迎接都監備軌(都廳·米麵色·盤膳色·宴享色 雜物色·應辦色·軍色)

仁祖12年(1634) 甲戌

인조12年 6月 20日에世子(昭顯世子) 冊封차 온 天使 盧維寧一行의 영접⁴⁷⁾에 대한 영접도감의 의

遊觀時相公宰樞茶啖床圖味數同

天使暫差等 差官以下茶啖味數五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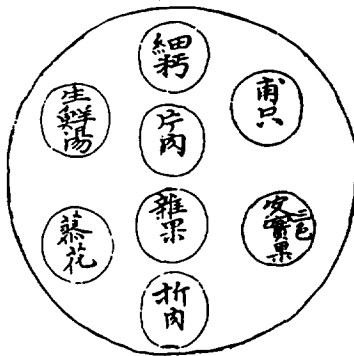


그림 2. 天使茶啖床圖

케인데, 영접도감 의케가운데서 都廳儀軌·米麵色儀軌·盤膳色儀軌·宴享色儀軌·雜物色儀軌·應辦色儀軌·軍色儀軌의 7種을 갖추고 있는 것이 유일의 것이다.

[都廳儀軌]는 使臣名·使臣의 日程·座日·都監事日과 이어 啓辭·甘結·稟目·移文이 날짜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使臣은 6月 20日 入京하여 7月 6日 回程하였다. 座日에는 郎廳으로서 米麵色·盤膳色·宴享色·雜物色·應辦色·軍色 각각 2~3名이 적혀있다.

[米麵色儀軌]는 使臣名·使臣의 日程·座日과 이어 稟目·甘結·移文등이 날짜 순으로 기록되어 있고, 事日單子에는 天使·東厠間·東軒·酒色·茶房·弘濟院·頭目庁의 房에 배치하는 雜物과 器皿이나 열되어 있으며, 卷末에는 米麵色所掌의 內資寺·內贖寺·軍資監등各司의 관원과 그 담당 잡물이 열

거되었고, 이어 各樣 米麵實入과 還下物이 各 司별 로 실려있다.

[盤膳色儀軌]에는 使臣名·使臣의 日程·座日·事日에 이어 甘結·移文·稟目이 날짜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事日에 의하니 使臣의 처소로 南別宮 근처의 民家를 修治하여 배정하고, 盤膳色에 필요한 人員동원과 料理에 쓰이는 食品및 器皿의 조달에 관한 규정이 있다. 그 밖에 炊飯 소용의 柴木·接待時持應雜物·每日三時支供에 소요되는 食品材料 및 그릇등 物品의 조달과 取役軍·守直軍士·放粮官등의 人力의 조달과 本色 庫間·使臣飯供処등의 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이다.

每日三時支供의 食品材料로서는 生秀魚·活鷄·猪肉·乾秀魚·生葱·豆泡·良醬·真油·醋·生薑등을 들고 있다.

[宴享色儀軌]는 使臣名·使臣의 日程·座日에 이어 甘結·稟目·移文·啓辭·伝教등이 날짜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使臣의 일정은 중요 宴享을 날짜 별로 수록하였는데 6月 21日 下馬宴, 6月 22日 仁政殿回禮宴, 6月 24日 王世子南別宮別宴, 6月 29日 南別宮翌日宴, 7月 2日 仁政殿 回禮宴, 7月 4日 王世子南別宮宴, 7月 5日 南別宮 上馬宴, 7月 6日 慕華館錢宴등이다. 稟目에는 各 宴享의 소요인원 및 각종 食品·雜物이 적혀 있다.

內資寺에서는 下馬宴 1回, 翌日宴 1回, 回禮宴 2回, 世子清宴 2回, 上馬宴 1回, 錢宴 1回의 소요물품을 마련하고, 天使上下馬宴은 主床·左挾床·右挾床이 있고, 主床은 3行으로 이루어진다.

[雜物色儀軌]는 使臣名·使臣의 日程·座日과 稟目·移文·甘結이 날짜순으로 되어 있다. 稟目에는 雜物色에서 소용되는 燒木·柶木·炭·酪醃牛의 기록이 있고, 또 雜物色 所掌인 早飯·茶啖등에 필요한 人員(汲水·使喚對客官·進上言·書使·樂生·各如差備人)과 물품(器皿·부채·종이)의 동원과 조달에 대한 사항이 기록 되어 있다.

[應辦色儀軌]의 內容은 使臣名·使臣의 日程·座日·啓辭·各樣禮單秩·送禮物件及回禮磨鍊秩의 차례이다. 應辦色이란 外國使臣이 쓰는 물건을 내어주는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啓辭에는 天使소용 잡물을 各道에 分定하는 일, 이어 各衙門에 銀子를 分定하는 일이 적혀 있고, 또 各樣禮單秩, 入京後 各樣 進上 및 宰臣의 처소규정등이 기록되어 있다.

[軍色儀軌]의 內容은 使臣名·使臣의 日程·座日과 事日, 이어 甘結·移文·稟目·傳·啓등이 날짜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天使接待節目에는 天使日傘 差備近仗과 天使接待時의 人員動員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軍色所掌單子에는 天使거동장소·처소의 物排가 장소별로 나열되어 있다.

8. 迎接都監宴享色儀軌

仁祖21年(1643) 癸未

인조21년 3월⁴⁸⁾에 온 淸使臣의 영접에 대하여 영접도감에서 만든 宴享色儀軌이다. 使臣名과 使臣日程이 우선 기록되어 있고, 日程은 3月 25日 入京, 27日 別茶啖排入, 28日 下馬宴, 29日 漢江遊觀, 30日 翌日宴回禮兼行, 4月 1·2·3日 別茶啖排入, 4日 上馬宴 別宴 兼行, 5日 別茶啖排入, 6日 都外錢宴과 같다. 요즘 漢江 遊覽코스를 定하고 遊覽船을 만들고 있으나 1600年代에 구체적인 外國使臣을 위한 漢江遊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啓辭와 稟目은 使臣이 오기 전 연회 준비상황을 논의한 기록과 사신이 머문기간의 각 宴享의 상황·일정절차를 논의한 기록이다. 중요한 內容은 宴享時의 房妓등 인원조달에 관한 것이다.

本色後考事實에는 司饗院·內資寺·禮賓寺·內膳寺·司畜署등各司에서 마련한 宴享用 床의 內容이 기록되어 있다. 內資寺 所掌의 床의 內容에 관한 보기를 적어보면, 下馬宴에서 主床의 1行→中朴桂 4器式 每器 上末 9升式·淸 6合 7夕 5分式·造淸 1升 1合 1夕 5里式·油 6合 3夕 式이고, 2行→漢菓 3行→6色 實果이다. 左挾은 1行→紅望口消, 2行→白茶食, 3行→小雲氷이고 右挾은 1行→紅卍條, 2行→松古卍條, 3行→栗味子이며 面挾床은 1行→魚肉, 2行→乾南, 3行→煎魚肉이다.

9. 迎接都監雜物色儀軌

仁祖21年(1643) 癸未

인조21년 9월에 온 淸使臣의 영접에 대한 영접도감의 잡물색의례이다. 淸使臣이 온 목적은 淸太宗의 喪을 알리러 온 것이다.⁴⁹⁾

內容은 勅使名(博氏)·日程·座目과 이어 稟目·移文·甘結이 날짜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甘結에 나오는 飯監·熟手·廚房熟手·餅匠·床花匠·粥匠·細糲匠·床花餅母·餅母·造果熟手·待

令熟手등 差備職名이 특히 주목되고, 稟目에는 各使臣의 每日各時 飲捧·茶啖雜果등의 床에 소요되는 食品材料名이 다채롭게 기록되어 있다.

10. 迎接都監盤膳色儀軌

仁祖21年(1643) 癸未

인조21년 10월 8일에 入京한 淸使 영접에 관한 迎接都監의 盤膳色儀軌이다. 이 때의 淸使는 賤他馬 등으로서 淸世祖의 즉위를 알리러 온 것이다.⁵⁰⁾

內容은 勅使名·日程·座目·本色應行節目과 이어 啓辭·甘結·稟目·移文이 날짜순으로 기록되어 있고, 實入品目과 還下品目이 적혀있다. 本色應行節目에는 使臣의 처소를 南別宮內 舊東門北邊行廊으로 정한 것과 盤膳色에 필요한 差備譯官·守直軍士·使令·書吏등의 인원조달과 酬米·豆泡·三時支供 盤排器皿·기타雜物등 물품조달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다.

V. 富中嘉禮食

嘉禮란 宮中の 경사스러운 儀禮 곧 임금의 婚禮, 即位, 王世子·王世孫의 婚禮·冊封등의 儀禮를 말한다. 이 가운데서 婚禮에 따른 同牢宴의 儀式이나 饌品을 알아볼수 있는 富中婚禮의 과정을 기록한 現存 嘉禮都監儀軌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仁祖 5年(1627) (昭顯世子) 嘉禮都監儀軌
- 仁祖 16年(1638) (仁祖莊烈后) 嘉禮都監儀軌
- 孝宗 2年(1651) (顯宗明聖后) 嘉禮都監儀軌
- 顯宗 11年(1670) (肅宗仁敬后) 嘉禮都監王世子嘉禮時都監儀軌
- 肅宗 6年(1680) (肅宗仁顯后) 嘉禮都監儀軌
- 肅宗 22年(1696) (景宗端懿后) 嘉禮都監儀軌
- 肅宗 28年(1702) (肅宗仁元王后) 嘉禮都監儀軌
- 肅宗 44年(1718) (景宗宣懿后) 嘉禮都監儀軌
- 英祖 3年(1727) (眞宗孝純后) 嘉禮都監儀軌
- 英祖 20年(1744) (莊祖獻敬后) 嘉禮都監儀軌
- 英祖 35年(1759) (英祖貞純后) 嘉禮都監儀軌
- 英祖 37年(1761) (正祖孝懿后) 嘉禮都監儀軌
- 純祖 2年(1802) (純祖純元后) 嘉禮都監儀軌
- 純祖 19年(1819) (文祖神貞后) 嘉禮都監儀軌
- 憲宗 3年(1837) (憲宗孝顯后) 嘉禮都監儀軌
- 憲宗 9年(1843) (憲宗孝宗后) 嘉禮都監儀軌
- 哲宗 2年(1851) (哲宗哲仁后) 嘉禮都監儀軌
- 高宗 3年(1866) (高宗明成后) 嘉禮都監儀軌

48) 仁祖實錄 卷44 仁祖 21年 3月 戊午. 承政院日記 崇禎 16年 3月 18·19·25日. 通文館志 卷9 紀念 仁祖大王 21年.
 49) 仁宗實錄 卷44 仁祖 21年 9月 甲午. 承政院日記 崇禎 16年 9月 3·4·5日. 同文叢考 別編 卷1 慰頒崇德皇帝崩逝詔.
 50) 仁祖實錄 卷44 仁祖 21年 10月 戊辰. 淸三朝實錄採要 世祖 卷1 崇德 8年 9月 丙午. 承政院日記 崇禎 16年 9月 26·28日·10月 8日.

高宗19年(1882) (純宗純明后) 嘉禮都監儀軌
光武10年(1906) (純宗純宗妃) 嘉禮都監儀軌

1.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

仁祖5年(1627) 丁卯

인조5년世子(소헌세자)와姜碩基의女(愍懷嬪)와의嘉禮에 관한 의례이다.

嘉禮의 진행은 10月 28日 納彩·10月 10日의 納徵·10月 21日 告期·12月 4日 冊嬪·12月 27日 親迎·12月 27日 同牢宴의 六禮이다.

內容은 座目과 약간의 啓辭·甘結·各司牒呈(牒呈이란 上官에게 올리는 서면에 의한 보고)등이 날 짜순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어 附儀軌·書啓·論賞·一房儀軌·二房儀軌·三房儀軌가 나온다.

2. 顯宗明聖后嘉禮都監儀軌

孝宗2年(1651) 辛卯

효종2년(1651)에洗馬金佑明의女(1642~1683)을 간택하여世子(顯宗)와嘉禮를 치루는 과정을 기록한 의례이다.

內容은 座目·啓辭·牒呈·甘結·論賞·附儀軌·一房·二房·三房의 차례로 기록되어 있다.

內資寺에서 마련한 同牢宴의 饌品은 同牢大宴床이 1行 中朴桂와 그 材料, 2行 紅散子·白散子, 3行 紅竹條·油沙竹條, 4行 6色果實이며, 左挾床은 1行 紅望口消·油沙望口消, 2行 白茶食, 3行 小紅望口消·油沙小望口消, 4行 雲水·添水……이며, 右挾床은 1行 紅竹條, 2行 松古竹條……이다.

3. 景宗端懿后嘉禮都監儀軌

肅宗22年(1696) 丙子

숙종22년에沈浩의 딸沈氏(1686~1718)는世子(景宗)嬪으로 간택하고 그 冊嬪하는 과정을 기록한 의례이다.

內容은 禮曹牒呈秩·各司牒呈秩·稟目秩·移文秩·甘結秩·論賞·一房儀軌·二房儀軌·別工作儀軌의 차례이다.

各司牒呈秩의 內資寺舉行物目을 들어보면 同牢宴 主床은 4行의 饌品과 그 材料, 左挾床 4行, 右挾床 4行, 一面挾床 4行으로 이루어지고, 別工作儀軌에는 世子宮進排秩과 工匠秩이 있고 二房 끝에는 彩色된 嘉禮班次圖 12面이 있다.

4. 莊祖獻敬后嘉禮都監儀軌

英祖20年(1744) 甲子

영조19년 11月 13日 洪鳳漢의女(1735~1815)가 思悼世子嬪으로 간택되고 12月 20日 納采·12月 29日 告期·1月 9日 冊嬪·1月 20日 親迎하는 과정을 기록한 의례이다.

內容은 座目·啓辭·禮關·儀註·移文·稟目·甘結·書啓·附儀軌·論賞·一房·二房·三房·別工作 등으로 이루어진다. 座目に 의하니 都提調는 領議政 金在魯이고 一房儀軌 끝에 嘉禮班次圖 12面이 있다.

1房儀軌의 內資寺舉行物目을 보니 同牢宴 主床은 2床이고 每床 소요 饌品의 1行은 中朴桂 4器式 8器(高1尺), 2行은 紅散子 2器式 4器(高8寸)·白散子 3器式 6器(高8寸), 3行은 紅竹條 3器式 6器(高6寸)·油沙竹條 2器式 4器(高6寸)이다. 左挾床·右挾床·面挾床은 각각 1行은 菜蔬, 2行은 魚肉(中脯·大全鱸·文魚·沙魚·乾雉), 3行은 乾南(生雁·鷄兒·鷄卵·生雉·熟全鱸), 4行은 煎油魚(鴨子·獐後脚·中生鮮·鳩子·小雀)이다.

5. 文祖神貞后嘉禮都監儀軌

純祖19年(1819) 己卯

영조19년에 副司直 趙萬永의女를世子(翼宗)嬪으로 冊封하는 과정을 기록한 의례이다. 9月 20日 納采·29日 納徵·10月 2日 告期·11日 冊嬪·13日 親迎과 同牢宴·14日 朝見禮가 있었다.

內容은 座目·舉行日記·伝教·移文·來關·甘結·稟目·米布式·賞典·儀軌事目·一房·二房·三房·別工作·修理所의 차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一房儀軌에는 敎命式, 三房儀軌에는 竹冊·玉印등의 圖式과 同牢宴排設圖가 있으며 책 끝에 嘉禮班次圖가 있다. 특히 同牢宴排設圖는 수 많은 嘉禮都監儀軌 가운데서 唯一의 것이다.

司饗院에서 마련한 同牢宴 所用의 饌品을 들어보면 四方盤에는 廣魚折·文魚折·大口魚折·快脯折, 中圓盤에는 乾雉折·引鱸折·煎油魚, 果盤에는 文魚折·乾雉折·全鱸折·藥果·生梨·實栢子·實生栗·乾正果, 初味에는 搗鱸湯·生雉炙·山蔘餅·追漬·實栢子·水正果, 二味에는 細糯·煎油魚·松古餅·追漬·實生果·水正果, 三味에는 魚頭頭·生雉全體燒·白朴餅·追漬大棗·水正果등이다.

한편 內資寺에서 마련한 同牢宴 主床은 中朴桂·紅散子·白散子·紅竹條·油沙竹條·六色果實의 6器이고, 左挾床은 紅望口消·油沙望口消·白茶食·全丹餅·雲水·赤味子兒·白味子兒의 7器이며, 右挾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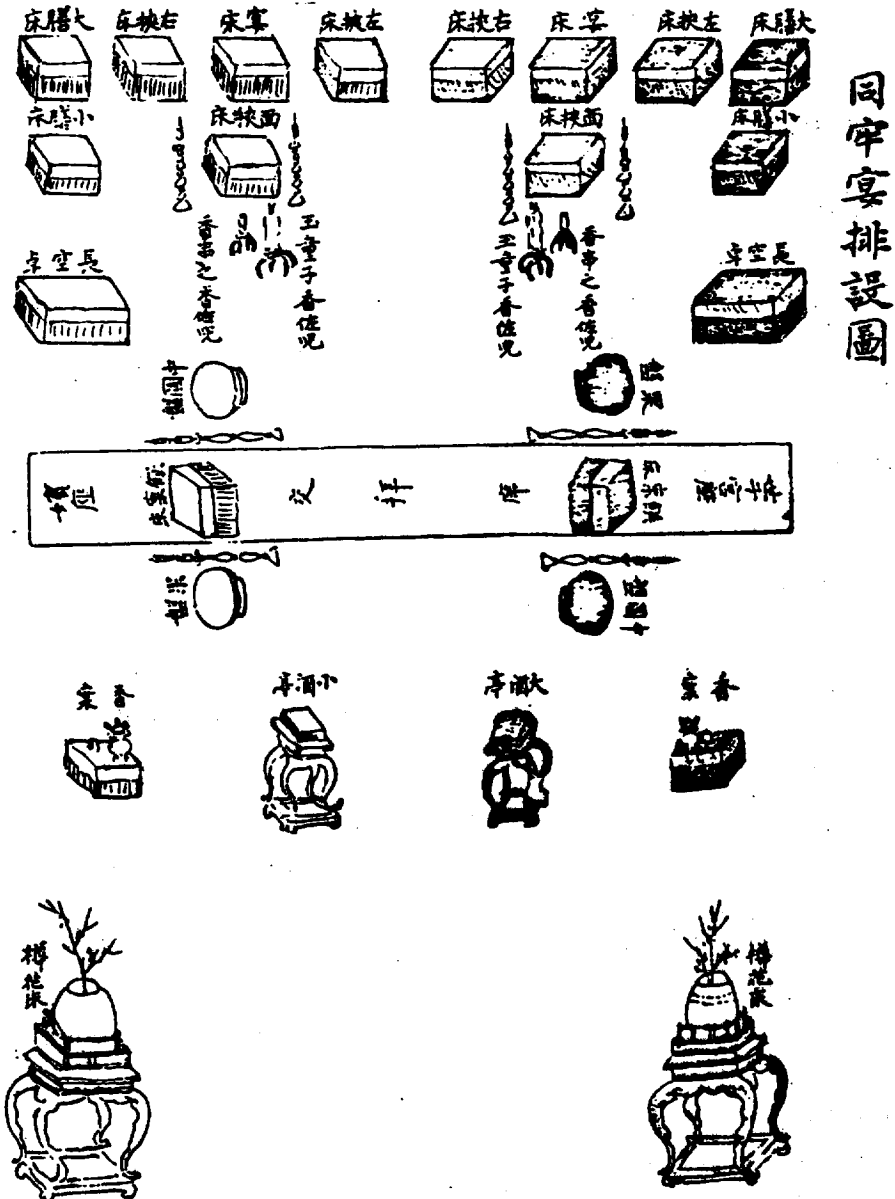


그림 3. 同牢宴排設圖

紅竹條·油沙竹條·小紅散子·小白散子·雲水·松古味子兒·油沙味子兒의 7器이다. 그리고 面俠床은 菜蔬·中膳折·大全腹·熟全腹·鷄兒·鷄卵·鴨子·犖後脚·中生鮮의 9器이다.

한편 大膳 2床은 每床 猪 1首·牛後脚 1隻·粳只·鴨子 1首이며, 小膳 2床은 各床 羊 1首·牛後脚 1隻·粳非 12竹·鴨子 1首이다.

6. 高宗明成后嘉禮都監備軌

高宗 3年 (1866) 丙寅

고종 3년 3월 閔致祿의 女孺 高宗妃로 冊封하는 과정을 기록한 儀軌이다. 3月 6日에 三揀擇· 9日 納采· 11日 納徵· 17日 告期· 20日 冊妃· 21日 親迎과 同牢宴· 22日에 朝見禮를 하였다.

內容은 座目·日記·伝教·移文·來關·禮關·甘結·財用·賞典·一房·二房·三房·別工作·修理所의 차례이다. 그리고 司饗院에서 마련한 同牢宴所用의 饌品은 文祖神貞后嘉禮都監儀軌의 것과 같다.

7. 東宮마마 嘉禮時御床 및 器皿의 件記

高宗19年(1882) 壬午

高宗 19年(1881)에 閉台鎬의 딸이 世子(純宗) 嬪으로 揀擇되고 冊嬪되는 과정의 「壬午正月 千萬歲 東宮마마 嘉禮時 御床記」가 藏書閣에 소장되어 있다. 그 內容에서 東宮마마 床을 보니(小藥果·小藥食果), 三色梅花軟查果, 各色乾正, 各色臠肉, (生梨·石榴·柚子·倭柑子), (生栗·生大栗), (四色茶食·各色熟實果), 生梨熟, 各色 正果, (蜜粘飯餅·白豆粘飯餅·當歸屑飯餅·綠豆飯餅), (大棗助岳·青助岳·石耳團子·色散餅), 藥食, (全鯪炒·生鯪炒), (生鮮煎油魚·煎油魚), (片肉·足餅), 各色 花陽炙, 水卵, 清泡, 雜湯, 糯, 醃醬, 芥子가 나오고, 兩殿마마·慈殿마마·王大妃마마·順和慈駕·大監·本宮마마의 御床을 보니(各色茶食·各色熟實果), (生梨·石榴·柚子·倭柑子·生栗), 各色 正果, 梨熟, 名色餅, 藥食, (全鯪炒·花陽炙), (生鮮煎油魚·煎油魚), (片肉·足餅), 水卵, 清泡, 雜湯, 糯, 醃醬, 芥子, 淸 등으로 이루어지고, 實床60床은 各各 各色生實果, 各色 正果, 梨熟, 各色餅, (全鯪炒·花陽炙), (生鮮煎油魚·煎油魚·片肉·足餅), 水卵, 雜湯, 糯, 醃醬, 芥子, 淸으로 이루어지며, 公事廳과 宮內人의 床은 各各 各色餅, (全鯪炒·花陽炙), (煎油魚·片肉), 清泡, 雜湯, 糯盒, 醃醬, 芥子, 淸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 장서각에는 「辛巳(1881) 4月千萬歲 東宮마마 嘉禮時 器皿件記」가 소장되어 있다. 이것은 寢室, 庫間(二層饌櫃·三層卓子·雲足盤·水刺盤·盆朴·鎗周鉢·大碟·湯器·鉢甲·涼盆·掬耳·助甲·東海·所羅·水卵煮 등), 阿甲庫, 針房繡房, 內燒廚房(滾水櫃·骨朴·茶板·折臼·木公伊·水桶·周厚·播鉄·研·豆磨石 등), 外燒廚房(鈔盤·米刀·餅刀 등), 生物房, 洗水間, 洗踏房, 福伊處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器皿名을 적어 놓은 것이다.

8. 純宗純宗妃嘉禮都監儀軌

光武10年(1906) 丙午

光武10年 尹澤榮의 女가 皇太子妃로 간택·冊妃되는 과정을 기록한 儀軌이다. 11月 24日 納彩, 12月 11日 冊妃·奉迎 등이 거행되었다.

內容은 座目·舉行日記·詔勅·照會(通牒附)·來照(報告附)·禮式院奏本(單子附)·訓令·財用(月銀日費·匠料式附)·賞典·一房(附儀註所·尚方司·典膳司)·二房·三房·別工作·修理所 등으로 이루어진다.

典膳司에서는 同牢宴所用의 四方盤·果盤·初味·二味·三味の 饌品과 器皿·香醞을 마련하였고, 또 皇帝朝見禮時·景孝殿相見禮時·冊妃時의 饌品을 마련한 기록이 있다.

VI. 宮中祭祀食

古朝鮮 이후 오랫동안 국가나 민간에 儀式이 있을 때 하늘이나 山川草木 등에 飲食을 차려놓고 샤머니즘적인 祭를 올렸으나 여기에 일정한 규정이 없었다. 三國時代에는 불교가 들어오고 中國과의 접촉이 많아지니 고유 儀式, 불교 儀式, 周禮·禮記 등을 중심으로 한 中國의 유교 儀式이 混用되어 왔다. 高麗時代에는 불교가 크게 융성하므로 祭는 佛敎 儀式一色이 되었으나 말엽에는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가 발흥하였고, 조선시대에서는 崇儒排佛을 國策으로 삼으니 國家의 모든 儀式이 유교식으로 바뀌었다. 世宗은 許稠 등에 명하여 五禮(吉禮·賓禮·嘉禮·軍禮·凶禮)을 중심으로 한 官民의 모든 儀式節次를 制定토록하고, 다시 五禮가운데서 實行해야 할 것을 뽑고 또 罔式을 붙여 成宗 5年 完成한 것이 이른바 「國朝五禮儀」이다. 卷1 吉禮에는 宗廟·社稷·山川 등에 국가에서 祭祀지내는 儀式, 卷2 吉禮에는 先農·祈雨·釋尊 등 국가적인 祭祀儀式, 卷3·4는 嘉禮, 卷5는 外國使臣을 접대하는 賓禮, 卷6 軍禮, 卷7, 8은 凶禮로 이루어진다. 또 후에 「國朝續五禮儀」 「國朝五禮儀補」가 편찬되기도 하였다. 이것으로 宮中祭祀食의 一部를 엿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宮中祭祀食에 관한 文獻으로서 우선 숙종 23年의 「宗廟儀軌」를 들 수 있다. 宗廟儀軌에는 各室에 올리는 犧牲物品의 物目, 饌品을 칠거할 때의 儀禮, 薦新物目 등이 기록되어 있다. 「종묘의례」에는 順조 16年(1816)의 것과 영조 17年의 「宗廟儀軌續錄」, 憲宗 8年(1842)의 「종묘의례속록」 등이 있다.

또 「景宗 端懿王后 祔廟都監都廳儀軌」가 있는데 영조 2年(1726) 5月~10月까지의 景宗妃 端懿王后의 祔廟에 대한 전말을 기록한 의례이고, 이 밖에 恭聖王后·端敬王后·端宗定順王后·明聖王后 등 동수 많은 祔廟都監都廳儀軌가 있다. 그리고 思悼世子와 獻敬王后의 사당인 景慕宮에 관한 것을 모

아서 만든 「景慕宮儀軌」가 있는데, 이 의례의 卷2 祀典에는 牲牢·饌品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 宮中 祭器를 圖解한 것으로 宣朝37년(1604)의 「社稷宗廟 文廟祭器都監儀軌」가 있다.

그리고 숙종 4년(1678)에서 고종 19년(1882) 사이의 각종 제사등의 禮式에 관련된 費用과 進上物品의 기록인 「薦進宮膳錄」, 또 각 宮房의 每節氣의 제사에 소요되는 祭需의 일부를 국가가 당시의 米 價로 환산하여 米穀으로 지급한 기록인 고종 29년(1892)의 「各宮房祭需別錄」, 영조 43년(1767)에서 순조 17년(1817) 사이의 「進上膳錄」, 현종 12년(1679)에서 숙종 23년(1697) 사이의 「薦新進上膳錄」 등도 祭需의 종류와 그 數量에 관하여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인조 15년(1637)에서 영조 3년(1727) 사이에 疫病을 막고, 戰亂後 疾病의 만연으로 死亡한 者를 위한 제사에 관하여 기록한 「厲祭膳錄」, 정조 10년(1786)에서 현종 12년(1846)에 걸치는 王室의 각종 제사·祭享時에 祭官의 擇定·肄義에 관하여 기록한 「祭膳錄」이 있다.

또 직접 宮中の 제사식은 아니지만 州縣의 각종 제사에 필요한 祭物과 그 수량을 기록한 「各祭享 祭物膳錄」도 있다

이와같이 朝鮮王朝의 宮中祭祀文獻이 散發的이나 마 매우 많다. 그러나 實際로 適用된 執行事例集으로는 「太常志」에 총집결되고 있으니 朝鮮王朝 祭祀食 研究는 「太常志」만에 의지하여도 대충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太常志는 본디 영조 42년(1766) 奉常寺에서 편찬한 것인데, 太常은 郊廟百神의 제사를 맡아보던 奉常寺의 別稱이다. 申維翰이 이미 찬술한 旧志 3책과 朴道郁이 엮은 典例 1책이 있었으나 그후 연혁의 변화가 적지 않아 참고하기가 불편하므로 영조 42년에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고, 고종 10년(1873)에 李根命이 奉常寺 判官으로 있으면서 영조 때의 「太常志」를 改編·續成한 「太常志」가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의 內容을 보면 序文 다음에 太常官廡全圖가 나오고 陳設圖 27면과 祭器·祭饌·祭用實果등의 圖式 19面등이 있다. 陳設圖以下の 圖式은 규장각本에는 없다.

卷 1의 建置·官宇에 醬醢庫·酒庫·蒸飯庫·汁油庫 등이 보이고, 官職이 적혀 있으며, 卷 2·3·4는 祀典으로서 宗廟·永寧殿·大報壇·社稷·陵寢·永禧殿·壇源殿·景慕宮·顯隆宮·文廟·神室·神室各祭(風雲雷雨·山川·城隍·尾箕星·雩祀·先農·先蚕·三角·漢江·

木從·北郊·報謝·各処祈雨·祈雪·祭·厲·別祈禱·別厲·司寒·開水·馬祖)·關下廟·蠶祭·宣武祠·玉樞丹祭·溫泉各祭(漢江·冠岳·聖去·溫井)·會盟祭·瀾川祭에 쓰이는 祭饌의 종류와 그 材料와 分量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卷 4의 끝부분의 藉田條에서는 土品·進上物品, 貢物條에는 各道에서 올린 貢物과 그 量이 적혀 있다. 卷 5에는 饌品만들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비록 祭饌이라 할지라도 朝鮮朝中·後期의 一般料理를 연구하는데도 매우 좋은 자료가 되며, 餅果는 圖式까지 곁들이고 있음이 특색적이다. 그 內容을 보면 油果, 各樣油果旧制, 各樣油果新制, 造果式(中朴桂·紅散子·白散子·煎茶食·白茶食·藥果·小朴桂), 果實, 釀酒, 造麥芽, 造麴, 造醋, 造脯, 沈醢, 沈醬, 沈菹, 造餅式(稷餅·粉案餅·自朴餅·豆團餅·切餅·霜花餅·唐糕餅·甫是餅·油沙餅·敬團餅·松膏餅·山蔘餅·冰者餅·餅匙), 蒸湯, 汁油, 造乾飯, 造糖, 造麵, 造燭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卷 6에는 祭器, 啓器時在之數, 祭服, 皮筒, 架子, 架子軍, 薦新, 宗廟薦新月令, 景慕宮薦新月令, 國恤各祭(國喪時의 各祭)의 祭物, 請臺, 凶倉, 穢水, 封山, 柴場등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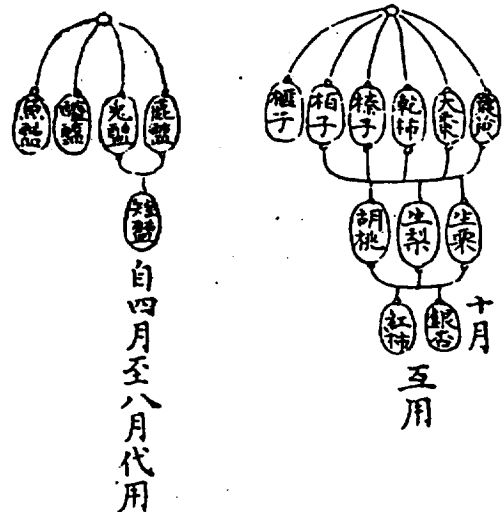


그림 4. 四色醢 및 諸陵忌辰祭(太常志)

한편 綏陵의 庚寅(1890) 11월 한달동안의 茶禮 및 上食의 件記가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그 內容을 보니 湯(광대두탕·완자탕·頭骨湯·잡탕·천엽복기탕·갈비탕·煎骨탕·족탕·양복기탕·두태복기탕·니자복기탕·고음탕), 炙(散炙·황산적·牛肉산적·굴산적), 조림(소갈비조리니·우육조리니,

내심육조리니), 좌반(석어·민어·천리찬·장뚝뚝이·약포·회포·전복잡기·장포), 膾(천엽회·두태회), 沈茶(根沈茶) 등이 있다.

다음은 庚寅(1830) 8월 29일의 茶禮 및 上食 件記 에 나오는 중요한 음식명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茶禮床의 것으로 대약과, 대다식과, 대만두과, 빙사과, 매화연사과, 강반, 대박계, 각색 감사과, 매엽과, 소소과, 꿀다식, 오미자다식, 송화다식, 송백자, 화채, 잡과임자밀점증병, 잡과감태점증병, 대조자박병, 잡과병, 잡과당귀단자, 해삼전, 족숙편, 란숙, 천엽회, 두태회, 나복생채, 홍합탕, 추어전탕, 칠계탕, 병시등이 있고, 上食床의 음식으로서 숙과, 고음탕, 추어탕, 전복숙, 해삼, 두태볶기, 편초구이, 편육, 어적, 양원전, 제원전, 각색 자반, 각색 장과, 각색 채, 각색 해, 염추어적, 침채, 진장 등이 적혀 있다.

또 庚寅(1890) 8월의 山陵都監 사찬 찬합 발기가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4層 饌盒의 內容은(소약과·소만두과·홍매화연사과·백매화연사과·말백자간경·전복쌈·광어·황포·문어국화) 2層,(민어·석어·약포·편포) 1層,(장포·장볶그니·복어므티니·콩자반·감곽좌반, 해의좌반) 1層으로 이루어지고, 3層 饌盒은(소약과·소만두과·홍매화연사과·백매화연사과·말백자간경·전복쌈·광어·황포·문어국화) 1層,(민어·석어·약포·편포) 1層,(장포·장볶그니·복어므티니·해의좌반·콩좌반·감곽좌반) 1層과, 장조림 35항으로 이루어진다.

이번에는 丙申(1836)의 山陵祭需 件記 에 나오는 祭需名을 적어보면, 녹말·황울·송화·흑임자·생니·석루·적니·숙시·팀시·포도·생대조·실호도·피호도·백자·생강·질경·오미자·산사·백당·계피·숙실과·조약·진말·백청·황청·장국 등과 같다.

끝으로 宮中食의 문헌으로서 「萬機要覽」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순조 8년(1808) 王命에 의하여 徐榮輔 등이 편찬한 조선 후기의 財政法規集인데, 財用篇 6권과 軍政篇 5권으로 나뉜다. 財用篇의 供上과 各貢을 통하여 宮中에서 이용되는 모든 食品材料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 이것과 비슷한 內容의 進納物目(假名)이 日本의 天理大學에 소장되어 있는 바 年代는 未詳이다.

Ⅶ. 結 論

朝鮮朝의 宮中食을 日常食·宮中慶事時의 宴會食·使臣의 迎接食·宮中嘉禮食·宮中祭祀食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연구가 從來 口伝에 의한 知識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正確하지 않고 또 韓末의 것이란 아쉬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보다 精確한 知識과 變遷史를 알려면 古文獻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이들에 관한 古文獻은 儀軌·膳錄 또는 件記 등의 形態로 一部 남아 있다.

宮中日常食의 文獻은 소주방에서 수라床 차리는 것은 아니지만 正祖19년(1795) 王一行이 華城으로 行次할 때의 朝夕食의 儀軌가 남아있고, 宮中慶事時의 宴會에 관한 儀軌와 膳錄은 숙종35년(1715)부터 光武6年(1902) 사이의 것이 총 27종 남아 있어서 宮中宴會用 料理와 食品材料의 모습과 變遷을 알 수 있다. 한편 中國使信의 迎接食에 관한 儀軌와 膳錄은 光海君元年(1609)에서 仁祖21年(1643) 사이의 20종이 남아 있는데, 이들은 年代의으로 宴會食儀軌나 膳錄보다 100余年 앞서고 있음이 宮中食의 變遷史研究에 크다란 뜻을 갖게 된다.

또 婚禮食의 文獻으로서는 嘉禮都監의 儀軌나 膳錄이 20종 남아 있어서 同牢宴의 料理名·食品材料名·排設圖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祭祀食의 연구에 필요한 文獻으로서 王朝實錄·각종 儀軌등 매우 많으나 구체적인 祭祀食의 종류나 만들기는 영조42년(1766)과 고종10년(1873)에 편찬된 太常志에서 그림을 곁들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편 宮中食에 관계되는 件記가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分析·考察을 거쳐야만 朝鮮王朝 宮中食의 모습이 再現될 수 있을 것이다.